

# mécénat

기업과 예술의 만남, 메세나 | 2019 SPRING VOL. 106



+ THEME MECENAT

방방곡곡 메세나 꽃이 피었습니다





종근당

종근당은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울림을 통해  
문화예술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 세상을 향한 따뜻한 울림

문화예술은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입니다



##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는 병원을 찾아가 투병생활로 지친 환자와 가족들에게 오페라 공연을 선물하는 사업입니다. 병원 로비에서 친근한 오페라와 뮤지컬 음악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오페라 & 콘서트>, 소아병동의 환아를 위한 어린이 맞춤형 <키즈오페라> 공연이 함께 진행됩니다. 오페라를 통해 아픈 이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종근당의 희망 행보는 계속됩니다.



## 종근당 예술지상

종근당은 2012년부터 한국메세나협회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일환으로 대안공간 '아트스페이스 휴'와 함께 신진 미술작가를 지원하는 '종근당 예술지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레지던스 프로그램 및 비영리 창작 스튜디오 지원을 받은 만 45세 미만 평면회화 작가 중 매년 세 명의 작가를 선정, 3년간 총 3천만 원의 창작지원금과 전시회 개최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문화기업으로 가는 길

## 하나. 문화로 인사합니다.

법인세 부담도 낮추고,  
기업의 이미지도 살리는 1석 2조의 방법입니다.

### 문화접대비란?

공연,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예술 축제, 문화예술 강연 등의 입장권이나 도서 및 간행물, 음반, 영화, 100만원 이하의 미술품을 구입해 접대에 사용하실 경우, 사용액만 큼 해당 기업의 접대비 한도액에 추가로 손비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접대비 한도액의 20% 범위 내)

### 문화접대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1. 접대비의 건전한 사용을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 세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3. 문화경영을 통해 임직원들의 직장생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 둘. 문화에 기부 하세요

기부도 하고, 법인세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 기부란?

별도의 반대급부 없이 문화예술단체 또는 문화예술상품에 현금,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에게 기부할 경우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메세나협회는 법인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협회 회원은 누구나 한국메세나협회를 통해 지정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문화로 소통하고, 문화에 기부하는 것은  
문화선진국으로 가는 초석을 놓는 일입니다.

## 방방곡곡 메세나 꽃이 피었습니다

### 테마기획

#### 칼럼 1

경남 메세나  
전성기는 지금부터

#### 칼럼 2

기업과 문화예술의  
동반성장



#### 인터뷰

건강한  
지역문화 생태계  
메세나가 정답

황윤철 경남메세나협회장



#### 인포그래픽

한눈에  
살펴보는  
영남지역  
메세나 지도



메세나 통권 106호  
발행일 2019년 3월 13일  
발행인 김영호  
발행처 한국메세나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7(여의도동 13-31)  
기계산업진흥회 본관 6층  
Tel. 02-761-3101~2  
기획 한국메세나협회 경영기획팀  
제작 디자인소호  
가격 5,000원

홈페이지  
한국메세나협회 [www.mecenat.or.kr](http://www.mecenat.or.kr)  
기업과 예술의 만남 [www.aandb.or.kr](http://www.aandb.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ecenat.korea](http://www.facebook.com/mecenat.korea)







작품 <연결된벽> 캔버스에 아크릴, 53x45cm, 2018년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하다. 마치 깨지기 쉬운 (Fragile) 유리잔처럼 말이다. 그래서 김지훈 작가는 인간에 대한 취급 주의를 제안한다. 이는 편리함의 그늘에 가려진 인간에 대한 존중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고, 인간소외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기도 하다. 작가는 이러한 의도를 단어를 통해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반추상(半抽象)적인 표현을 통해 관객이 직관적으로 깨우치도록 하기도 한다. 또한 동물의 화려한 경괴색(경계색)을 활용하여 독특한 매력을 전한다.

작가 김지훈

서울대학교 동양화 학사와 동대학 석·박사를 졸업한 김지훈 작가는 서울대학교, 교원대학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등에서의 활발한 강의 경력이 있다.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2018 IGNU ROAD>을 비롯하여 <2016 김지훈·정성윤 초대전>, <2015 경계없는 대화>, <2014 20th manif> 등에 참여한 바 있으며, <2014 김지훈 초대전>(한성자동차오토갤러리), <Fragile>(루쏘갤러리), <2013 김지훈展>(송와미술관) 등 개인전을 열었다.

계간 <메세나>는 신진 예술가를 널리 알리고 현대미술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신진 미술 작가의 작품을 표지에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메세나 포커스

- 16 **메세나 스토리**  
후원자의 초상  
인물의 심리를 꿰뚫어 본 그림들
- 20 **만나고 싶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변화와 도전'의 여정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박선희 대표이사
- 24 **해외는 지금**  
유럽 문화예술의 지각변동  
문화예술계에 드리운 브렉시트의 그림자
- 28 **메세나 갤러리**  
I draw: 그리는 것보다 멋진 건 없어  
디뮤지엄
- 32 **경제코드로 읽는 예술**  
죽음과 예술이 낳은 독점생산자



문화 CSR

- 36 **메세나 가까이 보기**  
틀을 깬 도전 살아있는 예술 교육 현장  
현대차 정몽구 재단 '교사 창의예술교육 연수'  
  
문화예술로 잡(Job)하라!  
GS칼텍스 '취준 동고동락(同苦同樂) 캠프'  
  
미래 희곡 작가들의 오아시스,  
열정 워크숍 현장  
두산연강재단 '두산청소년아트스쿨-희곡 워크숍'  
  
황금 알을 함께 낳을 엔젤투자자를 찾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 현대차 정몽구재단  
'H-온드림 데모데이'
- 42 **기업-예술 파트너십**  
빛의 소리로 사랑을 나눠요  
한미약품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Start! 2019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안내



함께하는 메세나

- 44 **회원사 뉴스**
- 48 **협회 소식**
- 49 **문화 캘린더**
- 52 **회원사 소개**



**칼럼** 일상을 예술로! 경남 문화예술의 향기  
글. 김용대(경남신문 전략기획실장)  
지역 상생 동력! 경북 메세나 활동  
글. 오동욱(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 방방곡곡 메세나



2019년에는 지역 경제 및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향상을 도모하면서 기업과 문화예술 단체의 긴밀한 협업과 상생을 도모하는 지역 메세나의 역할과 기능을 모색한다. 그 첫 번째, 지역 기업과의 끈끈한 유대와 차별화된 행보로 지역 메세나 활동을 선도하는 영남지역 메세나 이야기를 담아본다.

**인터뷰** 건강한 지역문화 생태계  
메세나가 정답  
황윤철(경남메세나협회장)

**메세나 지도** 한눈에 살펴보는  
영남지역 메세나 지도  
글. 메세나 편집부

꽃이 **영남편**  
피었습니다

# 경남 메세나 전성기는 지금부터

칼럼 1

일상을 예술로! 경남 문화예술의 향기

때가 되면 으레 봄이 오겠거니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작은 씨앗 하나가 흙더미의 무게를 이겨내고 세상을 향해 고개를 내밀 때, 얼마나 많은 도전과 노력이 필요했을지. 경남메세나협회를 주축으로 경남지역에 메세나 흙씨가 퍼져나간 지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우리는 삶 속에서 피어나는 예술의 봄과 마주한다.

01



02



03



01 회사 공간을 무대로 탈바꿈해 직원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하는 경원벤티크

02 병원 내 갤러리를 마련해 예술 힐링을 선사하는 창원 the큰병원

03 직원과 지역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네오씨티알





경남의 예술인들은 기업 이미지와 비전을 미술작품으로 표현해 기업에 기증하거나 사업장에 무대를 마련해 음악회를 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과 소통하고 있다



### 기업과 문화예술단체의 상생

문화예술의 황무지와도 같던 경남 지역에 첫 메세나 씨앗이 뿌려진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다. 경남 메세나협회 창립과 함께 도내 79개 기업이 뜻을 모아 8개 기업과 10개의 문화예술단체가 결연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경남 지역 메세나는 비약적 성과를 이뤘다. 특히 2013년에는 처음으로 기업과 문화예술단체 100개 팀이 결연을 맺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다. 현재는 경남 내 217개 기업이 힘을 모아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적극 후원하면서 경남의 문화예술 발전에 큰 힘을 불어넣고 있다. 기업과 예술단체가 만남으로써 기업은 사회공헌을 할 수 있고 예술단체는 안정된 창작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어 서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대표적인 도내 사례들을 통해서도 메세나의 순기능을 엿볼 수 있다. 선박부품 제조회사인 경원벤틱의 경우 김해 장유여성합창단과 결연을 맺고 회사 잔디밭에서 <회사도 무대다>란 공연명으로 가을 음악회를 펼치고 있다. 공연 관람이 여의치 않은 직원들을 위해 야에 회사에 무대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이 무대에는 장유여성합창단뿐 아니라 지역의 우수한 음악가들이 올라 직원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하고 있다.

창원 the큰병원은 창원아시아미술제진흥회, 마산 미술협회, 아르끼첸버오케스트라와 결연을 맺고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다.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의 병원을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병원 건물에 '숲 갤러리'를 열어 환자 및 보호자들이 예술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지역의 미술인들에게 갤러리 대관료 부담을 덜어 줘 작품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네오씨티알은 결연단체인 아이온예술공연과 함께 공장에서 '예술아, 공장에서 놀자!'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기계소리 가득한 공장은 순식간에 악기 소리 가득한 공연장으로 변했고, 직원 가족 뿐 아니라 지역민이 함께 모여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경남자동차판매(주)는 통영옷칠미술관을 지원해 통영의 옷칠 작품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업의 후원 덕분에 옷칠미술관은 관람객들이 꾸준히 늘어 인기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 일상을 예술로 만드는 경남 메세나 활동

기업 입장에서 보면 메세나 활동은 단순한 공헌사

업을 뛰어 넘는다. 삭막한 공장이 공연장으로 변하는 모습이 펼쳐지기도 하고 딱딱한 조직문화가 문화예술의 옷을 입고 긍정의 에너지를 발산하기도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은 지역민들이다. 경남에서는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해 주거나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유익한 공연과 전시 관람 티켓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경남 18개 시·군 지역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별도로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경남지역에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어 메세나 역시 지역민의 삶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 이제는 질적 성장을 도모할 때

기업과 지자체의 노력으로 경남지역 메세나가 잘 뿌리내릴 수 있었다. 그동안 메세나의 양적 성장에 주목했다면, 이제는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 질적인 성장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여기에는 기업뿐 아니라 지자체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경남에 있는 18개 시군에서 모든 지역민이 문화로 소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기업의 노력에 지자체가 날개를 달아 준다면 지역 어디에서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원 분야의 다양성이다. 물론 현재도 연극, 합창, 축제, 미술, 시조, 사물놀이, 오페라, 오케스트라, 영화, 국악, 무용, 발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기업들은 대중적인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지역 문화예술은 더욱 풍성해 질 것이다.

문화예술을 기꺼이 후원하는 메세나 기업 덕분에 경남도민들은 날마다 문화로 행복하다. 10여 년 전 경남에 메세나의 씨앗이 심겨지고 싹을 틔워 지금의 성장을 이룬 것처럼, 머지않아 경남 지역민 모두가 문화로 소외받지 않고 일상에서 마음껏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수확의 계절이 오리라 기대한다.



# 기업과 칼럼 2 문화예술의 동반성장



지역 상생 동력! 경북 메세나 활동

프랑스 석학 기 소르망은 “경제교류는 단순히 상품과 서비스의 교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도 주고받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제와 문화는 이미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경북 지역도 기업과 메세나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실리와 예술의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01  
지역민과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한  
<대구국제오페라축제>

02  
대구오페라하우스가 기업  
메세나로 운영한 신인 성악가  
<해외극장 진출 오디션>





02



최근 들어 지역 언론과 문화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나서 메세나를 중요  
아젠다(Agenda)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조사와 함께 직접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제와 문화 상생의 극대화, 메세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지역 기업의 메세나 활동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메세나라는 문화마케팅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사회공헌에 기여함으로써 돌아오는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업이 갖기 힘든 윤리적 요소(Ethos, 에토스)와 감성적 요소(Pathos, 파토스)를 문화마케팅을 통해 보완하려는 것이다. 메세나가 기업 이미지 제고에 광고나 후원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다.

메세나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영국(A&B)과 미국(ABC) 등 세계 각국의 메세나 주체들은 문화마케팅을 통한 사회공헌을 추구하면서 문화예술과 기업 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몇몇 선도적 기업에 의한 메세나가 이뤄지고는 있으나 메세나 효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가시효과가 큰 이벤트 중심으로 메세나가 편중되는 등 전반적인 토양이 미흡한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지역 언론과 문화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나서 메세나를 중요 아젠다(Agenda)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조사와 함께 직접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10년 대구문화재단이 본격적인 기업 메세나 운동에 나서면서 대구를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함과 동시에 십시일반 기부 참여를 권장했다. 당시 대구상공회의소와 대구은행 등이 적극적인 호의를 보이며 대구의 기업 메세나 운동의 기틀을 다졌다. 또한 2016년에는 대구메세나협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과 사회 공헌을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고민하며 발전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에서는 2007년 부산메세나진흥원이 설립돼 이듬해 부산시가 2008년을 기업 메세나 원년으로 선포한 바 있다. 부산문화재단에서도 메세나 활성화지원 사업을 통해 부산지역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업의 지정 기부금액 매칭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의 문화가치 경영 확산**

아직 경북지역에서는 메세나가 중심이라기보다 지역 문화재단의 한 사업 분야로서 그 맥을 이어가는 것은 사실이나,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기업 사례들이 꾸준히 들려와 반갑다. 대표 사례를 꼽자면 기업과 예술단체, 예술가의 공동 상생에 힘쓰는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있다. 오페라 대중화사업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콘텐츠 개발과 제작,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대구 오페라의 중심점이 되는 곳으로, 특히 기업 메세나 활동을 통해 신진 성악가 육성 및 해외진출 관련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롯데백화점, 삼익THK, 화성산업 등 지역 기업들과 함께 <해외극장 진출 오디션>과 같은 다양한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탈리아 피렌체 오페라극장, 독일 베를린 도이치오페라극장, 함부르크 오페라극장 등 세계적인 극장에 신진성악가들을 파견하는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기업 메세나가 재정 지원 형태에서 진화해 신진 성악가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활용되는 좋은 사례다. 지역기업이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예술단체는 오디션을 통해 신진 성악가를 양성함으로써 기업과 예술단체, 예술가가 모두 윈-윈 하는 모범사례를 창조했다.

다소 특이한 메세나 활동이지만 사회공헌과 비즈니스의 연결고리로 자리매김한 대구치맥페스티벌 사례도 있다. 지역기업들과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비즈니스 라운지'를 도입·운영해 대구은행, 대성에너지(주), 대구신세계, 라온건설(주), 국민은행 등 대구·경북 지역 주요기업들이 참여했다.

축제와 함께 바이어와의 상담, 협력사 간 우호증진, 노사 친목의 장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통상 딱딱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바이어와의 미팅을 치맥을 즐기면서 편한 분위기에서 진행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는 페스티벌 후원에 쓰이는 자원을 단순한 비용 개념이 아닌, 기업 비즈니스를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전략적 연결고리로 활용한 사례다.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사회공헌 기업으로는 포스코가 있다. 독특한 메세나 활동을 개발해 문화의 대중화를 선도한다. 특히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와 발전을 위해 기업과 대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캠퍼스음악회>를 지원하며 지역의 문화 수준을 제고시키고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켰다. 또한 <포항국제불빛축제>를 통해 '찰'을 생산하는 딱딱한 기업과 무거운 공업도시 분위기를 개선하고 유연하고 따뜻한 문화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데 기여했다.

**'하면 좋은 일'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로**

왕성한 메세나 활동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메세나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예술분야와 문화경영에 대한 전문성과 신념을 가진 이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메세나 정책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 관련주체 간의 통합적 협력모델이 구축돼야 한다. 여기에 자발적으로 메세나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당한 평가와 우호적인 분위기가 함께 조성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을 독려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수적이다. 이렇듯 지역 문화계와 기업이 메세나로 뜻 깊은 동행을 함께 하면서 '문화를 살리는 경제, 경제를 살리는 문화'라는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많아지길 바란다. '하면 좋은 일'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로 메세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다면, 이는 분명 대구·경북을 넘어 각 지역의 문화력을 높이는 훌륭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





# 건강한 지역문화 생태계

인터뷰

## 메세나가 정답

황윤철 경남메세나협회장  
(BNK경남은행장)



지난해 경남 지역 문화예술 후원 매개자로 역할해온  
경남메세나협회의 제8대 회장이 선출됐다.

지역경제의 크고 작은 난항 가운데서도 회원사 유치와 예술단체  
지원금 결연 등 꾸준한 성과를 창출하며 누구보다 분주한 시간을  
보낸 황윤철 회장을 만나 지역으로 뻗어가는 메세나의 자생력과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01  
신규부터 11년차 결연팀까지  
162개 팀이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을 약속한  
<2018 경남메세나협회  
결연식>





경남메세나협회 제8대 회장으로 누구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내셨으리라 봅니다. 창립 10주년을 넘어 전환기를 맞은 경남메세나협회의 회장으로서 새해 어떠한 각오로 임하셨는지요.

지난 2018년 경남메세나협회의 회장으로 부임하며 설레면서도 무거운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전에도 경남메세나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어 지역 문화예술계에서 경남메세나협회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책임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것도 좋지만 처음의 마음가짐 그대로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자리 잡은 메세나를 한층 더 성숙시키고 가꾸어 기업과 문화예술이 상생하고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올해 경남 메세나 활동의 슬로건 또는 목표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남메세나협회의 핵심 사업인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의 경우, 지난 11년간 참여 기업과 예술단체가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칭 비율은 다소 하락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외에 기초자치단체 중 창원시와 김해시가 매칭펀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

다. 더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참여를 권장하여 경남도내 18개 전 시군 소재 예술단체들에게 고루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문화구조를 조성하고 싶습니다. 또한 경남의 문화예술 균형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후원 저변을 확대하고 나아가 도민 모두가 편중 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질적 성장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타 지역과 견주어 활동이 왕성한 경남 메세나의 추진 동력과 지역적 강점이 궁금합니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창립 첫 해인 2007년 79개 회원사, 10개 팀 결연, 지원금 7억으로 시작해 2018년 기준으로 217개 회원사, 162개 팀이 결연하고 지원금 30억 원을 운용하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런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지역의 기업인들과 예술인들이 공유하는 '상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경제상황이 어려웠음에도 메세나가 오늘까지 꾸준히 이어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기업들이 깊은 애정으로 예술을 대하고 서로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은 덕분입니다. 예술단체들 또한 그런 기업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술은 과거와 현재가 가장 완벽하게 만나는 기술입니다. 300년 전 세상에 나온 베토벤 교향곡은 현대의 감성으로 재해석돼 우리의 우리에게 무한한 감동과 영감을 줍니다. 기업이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예술도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뜻을 모아 함께해 주십시오



01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경남메세나협회의 지속가능한  
 자원 조성 방식과 투명한 운영이 도움이 되었다고 보  
 니다. 현재 경남메세나협회는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회원기업, 경남메세나협회 지원기금 등 다양한 출처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경기침체, 예  
 산 삭감 등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  
 으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메세나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과제는  
 무엇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경남메세나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듣는 가장 큰 이유  
 는 경남 기업인들의 문화예술 지원 의지가 강하기 때  
 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상남도의 행정적 지원과 언론  
 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덕분입니다. 지역의 메세나 운동  
 은 무척 중요합니다. 지리적 연고를 바탕으로 한 메세  
 나 활동은 곧 공동체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지역과 지역문화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기업과 예술가,  
 행정과 지역민 등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협력하고, 수  
 평적 구조 속에서 지역경쟁력 확보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지역의 향토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메세나  
 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하고 싶습니다



**경남지역을 넘어 메세나 활동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포  
 부와 비전이 있으신지요.**

지역문화와 메세나의 활성화는 경제적 가치와 지역적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할 때 지역과 기업, 예술가 그리  
 고 지역민 모두에게 유의미한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입  
 니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지역 최초의 메세나협회이자  
 현재까지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성공사례입니  
 다. 지난 11년간 우리 경남메세나협회가 쌓아온 다양한  
 경험들과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메세나 운동의  
 전국적 확산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기업인으로서 메세나의 가치는 무엇인지, 기업과 문화  
 예술단체에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인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경영과 문화예술은 완전히 분리되는 개념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념에는 공통된 요소들이  
 많습니다. 예술은 독창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과 가  
 치를 창출해 감동을 선사합니다. 경영도 마찬가지입니  
 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제품과 서  
 비스를 개발하여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킵니다. 경  
 영과 문화예술을 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둘은 '따로 또 같이' 가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이윤을 추구하면서 적  
 극적으로 메세나 활동을 전개하고 예술가들이 자유롭  
 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예술단  
 체와 예술인은 우선 자신들의 활동이 세상을 더욱 풍요  
 롭게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창작활동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원기업과 활발히 교류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지금까지 문화적 이미지 제고 등 간접효과 창출을 위  
 해 문화를 수단으로 활용해 왔지만 이제는 예술가들의  
 창조성과 예술성을 경영에 접목해 기업문화 혁신에 활  
 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가  
 일방적인 후원에서 상생의 관계로 진화하고 메세나 활  
 동의 지속성도 담보된다고 생각합니다.

02



02

지난해 12월 18일, 경남메세나협회가 문화예술기부 활성화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BNK경남은행과 함께  
 개최한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





지역으로 뻗어가는 메세나 사업을 위한 행보에 있어 경남메세나협회가 감당할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 기대하시는 바가 궁금합니다.

현재 경남 외에 제주에서도 메세나 운동이 시작돼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메세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광주와 부산에서도 발족을 추진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지역의 향토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메세나 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하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메세나협회가 메세나 전국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경남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더 많은 지역에서 메세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힘을 더할 생각입니다.

한국에서 선진 수준으로 메세나가 인식되고 활성화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나라 기업의 예술지원 규모가 2천억 원이 넘는다는 한국메세나협회의 조사결과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기업인들이나 공연과 전시회를 즐겨 다니는 지인들에게 우리나라에서 기업과 예술의 교류를 얼마나 체감하는지를 물어보면 그 정도가 크지 않습니다. 심지어 '메세나'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메세나 활동이 미국과 일본처럼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메세나 활동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메세나 활동은 '일방적 후원'이 아닌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조건부적 지원이 아닌 배려와 지지를 바탕으로 예술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수치나 액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메세나 활동은 안정된 문화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식의 개선이 이뤄지고 메세나로 형성된 관계가 건전성과 지속성을 갖추기 시작하면 메세나 활동의 대중화나 수치적 성장은 자연스럽게 뒤따라 올 것입니다.

한국메세나협회 및 관련 정부기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메세나 활동은 기업과 문화예술단체의 수평적 파트너십을 핵심으로 하지만 일반 대중과도 동행해야 합니다. 문화로 더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올해 개정된 미술품 구입 손금산입 기준 금액 상향, 문화접대비 적용대상 확대 법안 시행 등은 무척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MECENAT> 독자들에게 전하고픈 말씀이 있으신지요.

먼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지치 않고 메세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인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활동으로 세상에 문화예술의 향기를 퍼트리고 있는 예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술은 과거와 현재가 가장 완벽하게 만나는 기술입니다. 300년 전 세상에 나온 베토벤 교향곡은 현대의 감성으로 재해석돼 오늘의 우리에게 무한한 감동과 영감을 줍니다. 기업이 성장을 멈추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예술도 절대 멈추서는 안 됩니다. 뜻을 모아 함께해 주십시오. 



# 한눈에 살펴보는

## 영남지역 메세나 지도

### 경남메세나협회

- 창립 : 2007년
- 대표자 : 황윤철 회장(경남은행장)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 홈페이지 : [www.gnmecenat.or.kr](http://www.gnmecenat.or.kr)

### 대구메세나협의회

- 창립 : 2016년
- 대표자 : 손인락 수석대표(영남일보 사장)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

### 효자아트홀

- 개관 : 1980년
- 협력기업 : 포스코
- 특징 :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역량 있는 개인의 예술발전을 위해 무료로 개방. 지역 문화예술발전과 지역민의 정서함양에 기여
-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행복길 120

### 포스코 갤러리

- 개관 : 1992년
- 협력기업 : 포스코
- 특징 : 포스코 본사 2층에서 월 1~2회, 연평균 20여 회 회화 전시가 이뤄지는 무료 갤러리
-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 대백프라자 프라임홀

- 개관 : 2004년
- 협력기업 : 대구백화점
- 특징 : 대구 유일의 300석 규모 중형 공연장으로, 콘서트·뮤지컬·강연회·박람회 등 다목적 이용 가능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333 10층
- 홈페이지 : [www.debec.co.kr](http://www.debec.co.kr)

### 대백프라자 갤러리

- 개관 : 1993년
- 협력기업 : 대구백화점
- 특징 : 1971년 대구 최초·최대 상업회랑으로 개관해 1970년 대 한국미술과 대구 미술사에 있어 상징적인 공간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333 12층
- 홈페이지 : [www.debecgallery.com](http://www.debecgallery.com)

### 우봉아트홀

- 개관 : 2005년
- 협력기업 : 협성교육재단
- 특징 : 교육법안답게 학생과 대구시민들을 위해 고품격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클래식 전용 공연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로33
- 홈페이지 : [www.woobongart.com](http://www.woobongart.com)

### 코오롱아외음악당

- 개관 : 2000년
- 협력기업 : 코오롱
- 특징 : 2만7천 명 규모의 탁 트인 야외에서 휴식과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민의 문화공원
- 주소 : 대구 달서구 아외음악당로180
- 홈페이지 : [artcenter.daegu.go.kr](http://artcenter.daegu.go.kr)

### 금강미술관

- 개관 : 2016년
- 협력기업 : 한국아나세
- 특징 : 경남지역 최초의 기업 미술관으로 저녁 9시까지 운영해 더 많은 지역민에게 미술 관람 기회 제공
-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10길 79

### 현대예술관

- 개관 : 1998년
- 협력기업 : 현대중공업
- 특징 : 문화예술 체육시설로 갤러리·음악회·뮤지컬 등 공연과 전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복합문화센터
- 주소 : 울산광역시 동구 명덕로10
- 홈페이지 : [www.hhiarts.co.kr](http://www.hhiarts.co.kr)

### KB아트홀

- 개관 : 2011년
- 협력기업 : KB손해보험
- 특징 : 젊은 예술인들의 창작 및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문화 소외 계층을 포함해 지역민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33번길 15
- 홈페이지 : [www.kbarthall.com/Global/Index](http://www.kbarthall.com/Global/Index)



### 부산은행조은극장(1관·2관)

- 개관 : 2009년
- 협력기업 : BNK부산은행
- 특징 : 문화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 우수 작품 유치 외에 지역의 훌륭한 작품을 수장·보완하여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는 공연장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 홈페이지 : [www.gp-gp.co.kr](http://www.gp-gp.co.kr)

###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 개관 : 2016년
- 협력기업 : 신한카드
- 특징 :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내에 자리한 뮤지컬 전용 극장으로 공연에 최적화된 음향시설 및 무대요건 완비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55
- 홈페이지 : [sohyangtheater.co.kr](http://sohyangtheater.co.kr)

### KNN씨어터

- 개관 : 2014년
- 협력기업 : KNN방송국
- 특징 : 부산 문화 중심부에 위치한 280석 규모의 쾌적한 소극장으로 매 1회 이상 웰메이드 공연 진행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30
- 홈페이지 : [blog.naver.com/papa\\_busan](http://blog.naver.com/papa_busan)

### 성원아트센터

- 개관 : 2016년
- 협력기업 : 성원타공(주)
- 특징 : 음악·연극을 위한 아트홀과 미술전시를 위한 갤러리 보유
-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4로 88
- 홈페이지 : [www.sungwonarthall.co.kr](http://www.sungwonarthal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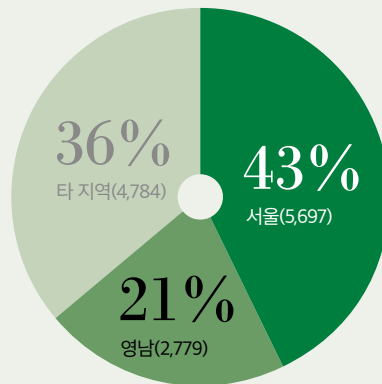
## 숫자로 보는 영남지역 주요 문화예술 활동

2017년 발표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진행된 주요 문화예술 활동 통계를 보면 개최 건수가 서울이 36%, 영남(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이 24%를 차지한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전시(시각예술) 활동의 경우 서울 43%, 영남 21%이며, 공연예술(음악·연극·무용·혼합)에서도 서울 31%, 영남 26%로 여전히 서울 지역에 문화예술 활동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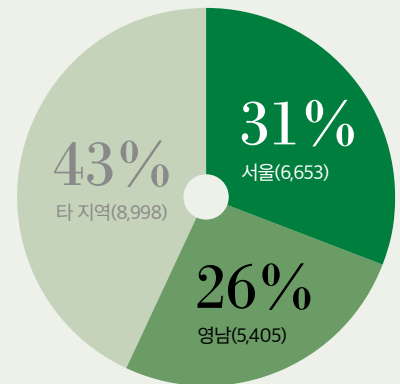
이 가운데 서울을 제외하고는 영남 지역이 왕성한 문화예술 활동을 펼쳐 타 지역(경기·전라·제주·강원·충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영남 지역권역으로 살펴보면 전시 및 공연예술 분야에서 부산과 대구에 이어 경남 지역 활동이 두드러지며 울산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이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강세지만 공연예술의 경우 영남지역에서 그에 못지않은 활동이 펼쳐지고 있어 눈여겨 볼직하다. 📊

전시  
13,260



공연예술  
21,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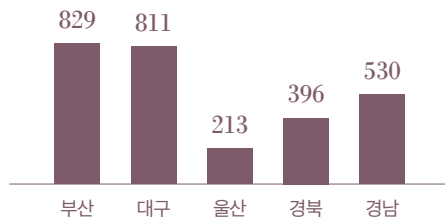


### ※용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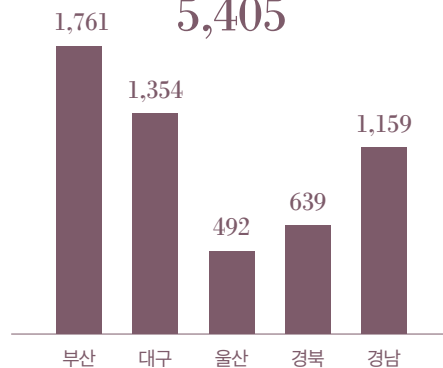
- 영남 :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통칭
- 공연예술 : 음악·연극·무용·혼합 통칭 (문학 제외)
- 타 지역 : 경기·전라·제주·강원·충청

## 영남지역별 주요 문화예술 활동

전시  
2,779



공연예술  
5,405



(단위 : 건, 지역 :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출처 : <문예연감 20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후원자의 초상 인물의 심리를 꿰뚫어 본 그림들

르네상스 권력가의 이상을 담은 초상



01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모습을 담은 초상화는 사진이 발명되기 전까지 인물의 권세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많이 그려졌다. 특히 르네상스 시대 예술 후원자를 대상으로 성행한 초상화는 오늘날 당대 역사나 풍속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의 재현을 넘어 인물의 이상까지 담아낸 초상화의 비밀을 살펴본다.

## 권력의 표상, 초상화

‘셀피’ 시대다. 누구나 한 번쯤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모습을 찍어봤을 것이다. 초상화는 예나 지금이나 나를 드러내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사진관에서 인물 사진을 찍으면 사진사가 붓으로 보정을 해주곤 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얼굴의 점이나 흉터도 없애고 머리카락도 좀 더 단정하게 만들어줬다. 디지털 카메라 시대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포토샵 보정이 필수가 됐고, 지금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자신의 초상을 찍고 다양한 앱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쉽게 만들어 낸다.

하지만 사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 초상화는 아무나 주문하거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값비싼 보석이나 시계, 가구처럼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하나의 사치품이자 소비재였다. 초상화는 또한 권력의 표상이었다. 권력자들은 자신의 위세와 업적을 당대에 과시하는 것은 물론 후대에까지 남기고자 초상화를 주문했다. 특히 르네상스 시대 권력가들에게 초상화는 자신의 권세와 위엄을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Piero della Francesca, 1415~1495)가 그린 <페데리코 다 몬테펠트로 부부의 초상화>는 르네상스 미술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초상화 중 하나다. 완벽한 측면으로 그려진 이 부부의 초상화는 서로 마주보는 형식의 두 쪽 패널화(캔버스를 대신해 쓰는 화판)다. 금발에 하얀 피부를 가진 부인은 기품 있게 차려입고 남편 쪽을 응시하고 있다. 그녀의 신분을 짐작케 하는 화려한 목걸이와 머리 장식은 입고 있는 심플한 검정 드레스와 대비를 이룬다. 붉은 색 모자와 옷을 착용한 남편 역시 따뜻한 시선으로 부인 쪽을 바라보고 있다. 각각 독립된 나무 패널에 그려졌지만 두 사람 뒤로 펼쳐진 풍경이 서로 이어져 있어 한 쌍으로 그려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부인의 얼굴과 구릿빛 남편의 얼굴이 대비를 이루고 콧등이 내려앉은 남편의 심한 매부리코가 유난히 눈길을 끈다. 화가는 왜 주문자의 외모를 좀 더 이상적으로 아름답게 보정하지 않은 걸까? 정면 모습을 그리는 일반적인 초상화와 달리 왜 모델의 옆모습을 그렸을까?

### 르네상스 시대

권력가들에게 초상화는

자신의 권세와 위엄을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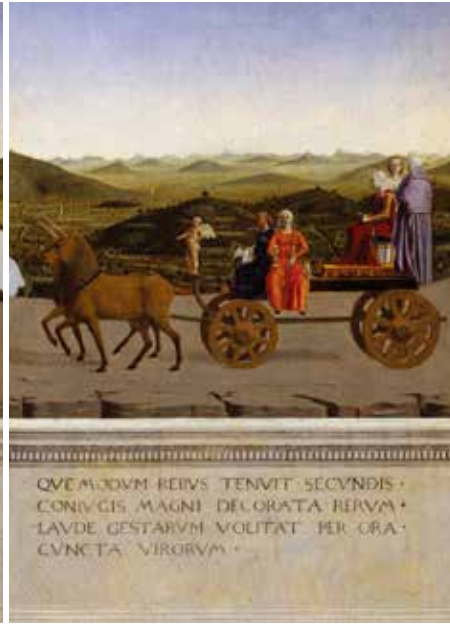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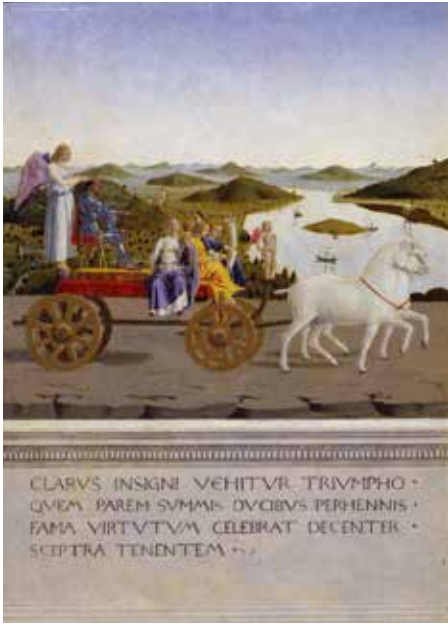
### 용병 출신의 공작, 귀족 출신의 아내

당시 초상화의 주문자들은 자신의 실제 모습과 닮게 그리되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화가에게 함께 주문했다. 따라서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이 부부가 누구며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모습으로 보이기 원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남편인 페데리코(Federico da Montefeltro, 1422~1482)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가장 성공한 용병 출신의 공작이다. 16세 때부터 용병으로 경력을 쌓은 그는 19세 때 성 레오 성을 정복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22세의 나이로 우르비노의 군주가 됐고 1474년 용병의 공을 인정받아 로마 교황에게 공작 칭호를 받았다. 그의 첫 용병 계약은 밀라노의 스포르차 가문이었다. 그는 300명의 기사로 꾸려진 용병부대를 이끌었고 단 한 번도 싸움에서 패한 적이 없었다. 절대로 무보수로 싸운 적이 없는 그의 몸값은 계속 올랐고 용병전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우르비노 공국의 경제적 기반을 닦는데 바탕이 됐다.

그는 용병으로서뿐 아니라 문예 후원자로서의 명성도 높았다. ‘이탈리아의 빛’이라 불릴 정도로 이탈리아 문예부흥에 기여한 후원자였다. 궁을 장식하기 위해 많은 그림을 주문했을





뿐 아니라 글 쓰는 작가들을 후원했고, 바티칸 다음으로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종합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해 수많은 필사본을 수집했다.

아내인 바티스타 스포르차(Battista Sforza, 1446~1472)는 몬테펠트로의 두 번째 부인으로 그가 용병으로 일했던 밀라노의 공작 프란체스코 스포르차의 조카딸이다. 스포르차 가문의 교육 전통에 따라 바티스타 역시 어렸을 때부터 인문교육을 받았고, 특히 그리스와 라틴어에 능통했다. 4살 때 처음으로 라틴어 공개 연설을 했고 라틴어 미사여구에 능통해 교황 비오 2세 앞에서도 연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인 조반니 산티가 “모든 은혜와 덕행을 갖춘 처녀”라고 묘사할 정도로 지

02

성과 덕을 겸비한 여성이었다.

스포르차 공작의 주선으로 두 사람이 결혼할 당시 바티스타는 겨우 14세였고, 페데리코는 38세였다. 스물네 살이라는 이례적인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매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고 정치에 관해 함께 의논했으며, 거의 모든 공식 행사에 동행했다. 또한 남편이 전쟁으로 부재 시 바티스타가 우르비노를 섭정했다.

바티스타는 결혼 후 11년 동안 딸만 6명을 낳은 끝에 첫 아들이자 후계자인 구이도발도를 낳았다. 그러나 같은 해 남편이 전장에 나간 사이 폐렴으로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페데리코는 피렌체의 용병으로 대승을 이루고 돌아왔을 때 득남의 기쁨과 아내를 잃는 슬픔을 동시에 겪어야 했다.

### 의미와 상징 부여하는 표현 기법

〈페데리코 다 몬테펠트로 부부의 초상화〉는 바티스타가 죽은 1472년 이후 또는 페데리코가 공작 작위를 받은 1474년 이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초상화 주문을 받은 프란체스코는 영웅적이면서도 슬픈 사연이 있는 이 부부의 초상을 어떻게 그려낼지 무척 고심했을 것이다. 섬세한 세부묘사와 상징성을 특징으로 하는 플랑드르의 회화처럼 이 그림 역시 다양한 의미와 상징성으로 가득하다.

화가는 플랑드르 회화와 고대 그리스 미술에서 배운 몇 가지의 독특한 장치들을 이 그림에 사용했다. 우선 바스티아의 얼굴을 유난히 창백하게 표현한 것은 그녀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페데리코의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는 그가 평생을 안락한 궁전 안이 아닌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았던 군인이었음을 상징하고 있다. 콧등이 내려앉은 심각한 매부리코는 감추고 싶은 신체적 결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쟁 때 다쳤던 영광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장치들인 것이다.

두 초상화가 측면으로 그려진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추정된다. 첫 번째는 그가 마상시합 때 오른쪽 눈을 잃으면서 생긴 흉한 외모를 감추기 위함이다. 주문자 입장에서 자신의 좋은

02  
초상화 뒷면에 그려진 <명예의 승리>와 <정숙함의 승리> ©Le Gallerie Uffizi

면만 보여주기 원했을 것이므로 외모의 결점을 숨길 수 있는 옆면 초상은 화가의 탁월한 선택이었다. 또 다른 이유는 이들 부부를 이상적이고 기념비적인 인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다. 옆면 초상의 형식은 그리스 메달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물과 현실공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화적이고 영웅적인 인물 표현을 할 때 선호되었다. 완벽한 옆모습으로 그려진 부부는 서로를 응시하되 표정과 몸짓이 모두 제거되어 현실 속 인물처럼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압도적인 크기의 인물과 달리 배경에는 작고 세밀하게 묘사된 먼 풍경을 그려 넣어 모델들의 영웅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동시에 화가는 인물과 의상, 화려한 장신구의 섬세한 표현을 통해 모델의 고귀한 신분과 실제감을 강조하고, 화가로서의 자신의 역량도 과감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럼 부부의 뒤에 펼쳐진 먼 풍경은 무엇일까? 플랑드르 회화에서 종종 등장하는 새의 시선으로 그려진 풍경은 이 부부가 지배했던 땅을 묘사하고 있다. 부인 초상의 배경은 영토의 경계선이나 초소 건물이 있어 전쟁을 통해 지키고 확장했던 땅을 상징하는 반면, 페데리코 초상의 배경엔 강이 흐르는 조용하고 평온한 마을 풍경이 그려져 있다. 페데리코는 전장에서

치열하게 싸울 때 사랑하는 부인을 잃었고, 그 후 우르비노로 돌아가 문예부흥에 힘쓰는 점을 화가도 주문자도 드러내고 싶었을 것이다.

실제로도 한쪽 눈이 실명해 더 이상 용병을 할 수도 없었던 페데리코는 부인 사후 성을 장식하기 위해 많은 그림들을 주문하고, 도서관을 짓기 위해 최고의 필사 전문가들과 편집자들을 고용하는 등 우르비노의 문예부흥에 힘썼다. 또한 우르비노 시민들의 행복을 알고자 호위무사 없이 상점들이 있는 우르비노 거리를 산책할 정도로 자애로운 군주였다. 병사들의 복지도 많은 관심을 쏟았는데, 특히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한 병사들을 잘 챙겼다. 또 병사들의 딸들에게는 결혼 지참금도 챙겨줬다. 이런 병사들의 복지에 대한 헌신으로 그의 병사들은 충성심이 매우 깊었고 사기가 높았기에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던 것이었다. 군인이었지만 학문에도 관심이 많았던 그는 역사와 철학책을 가까이했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탐독했으며, 그가 통치하던 우르비노는 옛 그리스 도시처럼 신분에 상관없이 평등했다고 한다.

르네상스의 화가들은  
주문자의 초상을 실물과 닮게  
사실적으로 재현해내기보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기 원하는지를  
잘 읽어내고 표현해야 했다

#### 염원 갖든 사실적 표현

우르비노 최고 권력자 부부의 초상은 이렇게 화가의 손을 통해 그들이 보여주고 싶고 대를 이어 남기고 싶은 이미지로 화폭에 새겨졌다. 그런데 이들 부부의 초상은 이게 완성이 아니었다. 화가는 남편의 초상화 뒷면에 갑옷을 입은 페데리코가 흰말 두 마리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명예의 승리'를 향해가는 모습을, 부인의 초상화 뒷면에는 그녀가 유니콘 두 마리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정숙함의 승리로 나아가는 장면을 그려 넣음으로써 주문자가 원하는 초상을 비로소 마무리할 수 있었다. 뒷면의 배경도 앞면처럼 서로 이어져 있고 각각의 그림 아래에는 이들 부부에게 바치는 헌정시가 적혀 있다.

프란체스카처럼 르네상스의 화가들은 주문자의 초상을 실물과 닮게 사실적으로 재현해내기보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기 원하는지를 잘 읽어내고 표현해야 했다. 후원자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예리한 눈과 이를 화폭에 잘 구현해 내는 역량을 가진 예술가만이 화가로서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



# 박선희

1985년 창단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이하  
코리안심포니)는 30여 년간  
국내외에서 가장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는 오케스트라로  
명성을 높여왔다. 오랜 기간  
민간 교향악단으로 국내  
음악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코리안심포니는 2001년 예술의전당  
상주오케스트라로 지정된 이래  
민·관 문화예술의 거버넌스 모델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박선희  
신임 대표이사가 임명되어 새로운  
출발을 알린 코리안심포니, 앞으로  
썩아갈 이들의 역사가 궁금해진다.



# 다시 시작하는 변화와 도전의 여정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박선희 대표이사

---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클래식계에 깜짝 소식이 전해졌다.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에서 20여 년 재직하며 한국 클래식 발전에 공헌해온 박선희 씨가 코리안심포니 신임 대표이사로 임명된 것이다. 이는 코리안심포니 창단 이래 최초의 여성 수장이기도 하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시절,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과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의 협연을 성사시키고 신진 예술가 발굴과 육성에도 실무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아 전격적으로 임명된 그에게 클래식계가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특히 코리안심포니가 우리 음악단체 역사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립 예술단체들(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등)과 협업을 통한 연주활동이 많은 국가대표 오케스트라라는 점에서 그가 어떻게 변화를 시도하고 리더십을 발휘할지가 큰 관심사다. 다음은 단원들이 연습을 마친 후 비어있는 연습실에서 이뤄진 그와의 인터뷰다.



◊ **오랜 기간 몸담았던 곳에서 나와 새로운 도전을 맞게 됐습니다. 소회가 어떠신지요.**

제 삶은 1월 11일, 임명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익숙했던 삶에서 환경이 크게 바뀌니 겁도 나고 아직은 적응 중입니다.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아주 즐겁습니다.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도 기대되고요. 여기서 경험하게 될 것들, 배우게 될 것들에 대한 설렘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 **취임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출근을 하면서 점심마다 단원 분들과 상견례를 가졌어요. 한 분 한 분 인사를 하면서 얼굴을 알리고 이야기를 경청하는 시간이었죠. 그 중에는 코리안심포니 초창기부터 활동해온 단원이 두 분이 계셨어요. 우리 오케스트라의 산증인과 같은 분이죠. 저마다 오케스트라에 대한 애정의 깊이가 남달랐어요. 우리의 현주소에 대한 진단, 정체성, 미래적인 제안과 대표로서의 할 일

등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지요. 코리안심포니의 발전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을 함께하며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생각해봤어요. 아직은 한 달 여밖에 안된 새내기라(웃음) 경영 목표, 비전 같은 거창한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여주기 식, 업적 쌓기 식의 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오케스트라를 위해 꼭 할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쌓아갈 역사에 누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 **코리안심포니는 우리나라 음악사에서 독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으로 시작해 지금은 공공의 영역으로 변화를 거쳤는데, 코리안심포니의 역사에 대해 안팎에서 어떻게 보고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2015년에 코리안심포니의 창립을 기념한 30주년사 책을 읽어볼 수 있었어요. 그때는 '오랜 역사를 가진 단체구나' 정도였지만, 최근에 다시 이 책을 꼼꼼히 살펴보면 우리 음악사의 변화의 시점에 함께했던 오케스트라, 엄청난 연주 프로필을 갖춘 실력 있는 오케스트라라는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읽어보면서 '경이'를 느꼈다고 할까요? 확고한 정체성도 엿볼 수 있었어요. 민간 오케스트라로 시작해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정기 연주회를 비롯한 무용·오페라·합창 반주는 물론 비 클래식 장르까지 도맡아온 치열한 역사가 첫 번째였죠. 또 예술의전당 상주오케스트라가 되고 사단법인으로 탈바꿈해 민간과 공공의 성격을 갖추게 된 역사가 두 번째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있었을까'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꼭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시작점은 '코리안심포니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알려보자'가 될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 단원들의 노고를 인정받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강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코리안심포니에 대해 자랑해 주세요.**

코리안심포니가 연간 진행하는 연주회는 90~100여 건 정도입니다. 타 오케스트라에 비해 무척 많은 숫자죠. 비단 공연수가 많은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국내에서 상설로 교향악·오페라·무용·합창 공연이 즉시 가능한 오케스트라는 코리안심포니가 유일할 겁니다. 어찌 보면 코리안심포니가 함께하는 공연은 수준에 관한 보증수표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80년대 우리 음악계에 일었던 교향악 운동(국가 차원에서 우수한 교향악단 육성을 통해 문화예술 척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자 했던 일)에 가장 앞장서 있었고, 시대 변화의 중심에서 강인한 생명력을 보였던 오케스트라였죠. 음악가들이 자발적으로 창단한 단체인 만큼 지금까지 유연한 조직문화를 갖고 있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지금의 코리안심포니만의 체력이자 바탕이 됐어요. 향후에 어떠한 트렌드 변화가 있더라도 가장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라면 단연 코리안심포니라 자신할 수 있습니다.

◊ **코리안심포니의 발전 과정에서 과거 쌍용그룹의 후원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예술단체 후원에 있어 선도적인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업의 메세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근무했던 금호아시아문화재단이 우리나라 메세나 활동의 중요한 표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곳에서 제가 느낀 점은 메세나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다림'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음악영재 발굴과 육성, 음악을 매개로 한 국제교류는 단시간 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음악영재라도 최소한 10여 년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실력을 갖춘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기업 논리로 볼 때 메세나는 참 어려운 아젠다입니다. 하지만 굳이 르네상스 시대의 메디치를 말하지 않더라도, 메세나는 효용성이 아니라 오랜 가치를 두고 펼쳐져야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업이 단순히 이익 추구가 아니라 오래도록 존속하는 데에 가치가 있다면 더욱 더 말이죠.



향후에 어떠한 트렌드 변화가 있더라도 가장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라면 단연 코리안심포니라 자신할 수 있습니다



Park

◊ **대표님은 민간 기업에서 공공 영역으로 들어온 셈입니다. 앞으로 코리안심포니를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인지 말씀해주세요.**

민간과는 다르게 공공 부문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할 때 정당성, 적합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때문에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라 오랫동안 사무국에서 근무해온 분들이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능력이 뛰어난 직원들이라 제가 혹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어요(웃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동료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최적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역사가 깃들이 있듯이, 직원들은 물론 단원들과 신중하게 협력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리안심포니가 어떻게 발전해나갈지 꼭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유럽 문화예술의 시각변동

문화예술계에 드리운 브렉시트의 그림자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브렉시트가 3월 29일 예정된 가운데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시각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영국 런던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자 클래식 공연예술 시장의 화수분이기도 하다. 브렉시트와 관련해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는 가운데

유럽 문화예술계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 무너지는 유럽 클래식 음악의 허브

BBC 필하모닉(영국 국영방송 산하 관현악단) 행정감독을 거쳐 북아일랜드 얼스터 오케스트라 단장으로 자리를 옮긴 리처드 위글리는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복잡하다. 브렉시트 가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얼스터 오케스트라는 백스톱(Backstop)의 향방까지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백스톱이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유럽연합(이하 EU) 소속인 아일랜드 간 통행 및 통관 자유를 보장하는 안전장치다. 백스톱 실효 여부에 따라 얼스터 오케스트라 뿐 아니라 아일랜드의 주요 오케스트라들도 국제 공연 예술 시장에서 낙오될 위기에 처한다.

실제로, 오는 3월 29일 영국 정부가 아무런 협상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를 강행한다면 북아일랜드 아티스트의 유럽활동 전반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이에 지난 1월말에는 영국 오케스트라 협회(ABO)가 브렉시트 대비를 주제로 연례 총회를 얼스터에서 열었다. 영국 전역의 오케스트라 단장들이 북아일랜드에 모여 브렉시트가 영국 예술조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논의했다. 동시에 회의 참가자들은 논의 과정에서 유럽대륙의 반(反) 영국 정서가 얼마나 강한지 재확인했다. 작곡가 헨델 시절부터 ‘클래식 시장의 수도’로 기능한 런던 시장의 몰락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 영국 최상류 클래식 음악가들의 이탈 우려

영국이 2016년 국민투표로 EU 탈퇴를 결정한 뒤, 지난 3년간 영국 공연 예술시장의 세계 클래식 산업 선두주자로서의 기능과 위상은 급속히 위축됐다. 즉각적으로 공연 티켓 수입과, 정부 보조, 민간 기부, 해외 투어로 대변되는 오케스트라의 재정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발생했다. 특히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개런티에도 기꺼이 클래식의 수도를 찾아올 명성 있는 연주자들이 줄을 이었다면, 브렉시트 이후에는 복잡한 비자 절차,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한 서류 재작성을 요청하는 영국 이민국의 조치로 인해 국제적 스타들은 런던 대신, 뉴욕과 베를린으로 메인 무대를 옮길 것이다.

가령, 영국 최고의 시대악기 연주단체인 계몽시대 오케스트라 (OAE/Orchestra of the Age of Enlightenment)는 오는 4월 2일부터 9일까지 런던, 룩셈부르크,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에서 영국 지휘자 사이먼 래틀이 주재하는 바흐 <요한 수난곡>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3월 29일 노딜 브렉시트가 결정되면 당장 4월 2일 런던 공연이 정상적으로 열릴지 장담할 수 없다. 영국과 유럽 국적 단원들로 구성된 OAE의 특성상 유럽 출신 연주자들이 런던 공연 전까지 공연 비자 구비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럽 본토 음악가들은 2019년 2월까지 영국 내 연주 여행에서 국경 통과 시 비자와 워크퍼밋(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외국인 노동허가서)이 필요 없지만, 3월 29일 이후 별도의 협정안이 없는 한 영국 이민국은 유럽 아티스트에게 비자를 요구하거나 직원 개별 판정에 따라 흥행 목적 공연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현재는 공항과 유로스타(국제특급열차)로 영국에 들어올 때 여권 외에 유효한 신분증이 허용된다면 이후에는 여권만 인정될 것이다. 유럽 본토에서 가입한 사회 보장 보험(A1s)도 영국 내에서 효력을 상실해 영국 체류 시 별도의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유럽건강보험카드인 EHIC(European Health Insurance Card)도 영국에서는 인정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필요 시 여행자 보험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01

01  
3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 단행을 앞두고 영국은 물론 유럽 클래식 공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셔터스톡





02

반대로 영국 음악가들의 유럽 본토 진출 역시 난관을 겪을 것이다. 현재는 EU 국가에 흥행 목적 공연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브렉시트 이후에는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쉥겐조약 가입국가(유럽 공통 출입국 관리 정책 조약을 맺은 국가)와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루마니아 입국 시 비자를 요구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영국 여권으로 쉥겐조약 가입국가를 6개월에서 9년까지 여행할 수 있지만 브렉시트 이후에는 가능 여부를 알 수 없다. 영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유럽 본토에 본거나 별장을 두고 연주 여행을 이어가던 최상류층 클래식 음악가들은 국적 변경을 고민할 것이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유럽 본토 출신 음악 관계자들의 체류 자격도 문제된다. 현행 영국 내 취업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EU 시민권자들은 브렉시트 이후 EU 정착 계획 의향서(EU settlement scheme) 제출을 브렉시트 논의 중에 요구받고 있다. EU와 비EU 출신의 영국 내 체류 가격에 차별을 둔 기존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음악가와 매니저들이 갖춰야 할 세부 비자 종류도 달라질 것이다. 영국 정부가 예술적으로 비범한 재능을 인정하는 'Tier 1(사업비자)'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머물 것이고, 오케스트라의 수석-부수석급이나 고액 연봉을 받는 'Tier 2(취업비자)', 창조산업과 스포츠에 종사하는 오케스트라 평단원이나 하위직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12~24개월 체류를 허가하는 'Tier 5(자원봉사·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내 예술단체 조직과 창업에 큰 문제가 없던 EU출신 예술가들도 자영업 비자를 취득하지 않으면 영국에서 돈을 벌 기회는 없다.

### 새로운 시장 개척 필요

2016년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됐을 때, 클래식과 예술분야, 창조산업 전반에서 가장 우려한 점은 영국이 EU 단일시장(European Economic Area)에서 배제되는 사태다.

클래식에서는 악기 이동에 지대한 문제가 생긴다. 현행 영국의 공항과 항구의 세관은 기악 연주자의 악기 이동에 자유를 부여하지만 브렉시트 이후 악기의 무관세입시통관증서(ATA Carnets)의 소지가 명문화될 것이다. EU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연주자라도 국제면허증 소지가 요구될 것이다. 이미 공연 3~5년 전에 개런티 협의를 끝낸 연주자 계약에서는 세

02  
해마다 세계 최대 클래식  
음악축제 '프롬(Proms)'이  
열리는 영국 런던 로열  
알버트홀 전경 ©셔터스톡



금 부과 논의가 재개될 것이고 공연 취소도 빈발할 것이다.

브렉시트 여파로 EU에 통용되던 문화예술 행사와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한 영국과 EU 개별 국가 간 협정이 별도로 체결돼야 하고, 영국 예술조직의 민간 기부금 모금을 장려한 기프트 에이드(Gift Aid)와 창조산업 세액 공제(Creative Industry Relief)의 현행 유지도 불투명하다. 영국과 EU 국가 사이에 브렉시트로 인한 음반과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과 라이선싱 규정도 다시 정비돼야 한다.

2016년 브렉시트 국민 투표 가결 이후 EU와 영국 사이에 정부 차원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은 거의 모두 중단됐다. 영국 부동산에 진출한 중국 기업을 제외하고 영국 오케스트라와 오페라단 지원에 적극적인 기업도 드물게 됐다. 이에 영국 오케스트라들은 현재 새로운 자금원으로 동아시아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런던 심포니, 런던 필하모닉, 필하모니아를 비롯한 영국 전역의 오케스트라가 일본, 중국, 한국의 문을 자주 두드리고 있는 이유다.

런던 심포니, 런던 필하모닉,  
필하모니아를 비롯해 영국 전역의  
거의 모든 오케스트라가 일본, 중국,  
한국의 문을 더욱 자주 두드리고 있다

### 유럽 클래식 시장의 헤게모니 분산

영국 국적 음악가들이 우려하는 브렉시트의 본질적 위기는 영국 클래식 시장의 질적 하락이다. 사이먼 래틀(Simon Rattle) 런던 심포니 음악감독과 안토니오 파파노(Antonio Pappano) 로열 오페라하우스 음악감독이 동시에 지적하는 브렉시트의 가장 큰 문제는 EU와 제3세계에서 영국의 음악학교와 오페라, 오케스트라로 들어오는 고급 인력이 브렉시트를 계기로 격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고가 서서히 현실이 되고 있다.

먼저 영국 음악학교 학생의 20퍼센트를 차지하는 EU출신 인재들이 영국에서 교육받고 성장해 오케스트라의 질적 구성을 풍부하게 했던 기존 발전 모델이 붕괴되고 있다. EU 출신 유학생에게 학자금 혜택을 주던 제도도 폐지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EU 학생들은 제3세계 출신 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1년에 2만 파운드 이상(한화 약 3천만 원)을 수업료로 지불해야 한다. 에라스무스(EU와 영국의 학제 연계제도) 프로그램도 위기에 처했다. 영국

출신 학생 역시 유럽에서 열리는 다양한 페스티벌에 참가해 인적 교류를 나눌 기회가 줄고 있다.

이렇듯 브렉시트 정국으로 접어든 이후 영국 예술 시장은 저물고 있다. 런던에 근거했던 EU 유스오케스트라(EUYO)는 이탈리아로 옮겼고 유러피언 유니언 바로크 오케스트라는 벨기에로 갔다. 런던에 본사를 둔 클래식 메이저 매니지먼트사인 아스코나스홀트, 해리슨패럿, 인터뮤지카의 영향력은 예전 같지 않다. 유망 중소 에이전시들도 영국 내에 아티스트를 공급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사세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2023년 유럽 문화 수도 행사는 영국에서 열려야 하지만, 브렉시트가 결정되면 영국이 과연 유럽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먼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 무산도 조심스레 예견된다. 브렉시트를 통해 영국 공연 시장은 자신들의 역량을 민낯으로 마주하고 있다. 국민투표 전 영국 창조 산업 종사자 96%가 EU 잔류를 희망했듯이, 3월 29일 이후 EEA(유럽경제지역) 잔류가 마지막 희망의 끈이다. ■■

# I draw: 그리는 것보다 멋진 건 없어

디뮤지엄

01



디뮤지엄은 2019년 첫 기획전시로 <I draw: 그리는 것보다 더 멋진 건 없어>를 개최한다. 전시는 마스터 일러스트레이터를 포함해 세계 각지에서 주목받고 있는 국내외 작가 16인의 드로잉, 일러스트레이션, 오브제, 애니메이션, 설치 등 약 350여 점의 작품을 소개한다.

01

Mysterious Window(낯선 사물을 찾다) 테마의 Pierre Le-Tan 작품 공간 ©디뮤지엄

02

Magnifying Glass(미로 속에 머무는 환상) 테마의 Katie Scott 작품 공간 ©디뮤지엄

03

The Drawing Room(지나간 시간을 간직하다) 테마의 Faye Toogood 작품 공간 ©디뮤지엄



02



03

작가들이 손으로 직접 그려낸 이미지는 그들만의 개성적인 감성과 기억이 담겼다. 전시는 이들 작품 세계를 옴니버스식으로 구성했다. 관객들은 창문, 정원, 응접실, 박물관 등 작가에게 영감을 준 공간을 모티브로 한 개별 전시 공간의 안과 밖을 오가며 일상 속 평범한 장소에 숨겨진 환상적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디뮤지엄은 시노그래피(scenography), 센토그래피(scentography), 사운드(sound) 분야의 크리에이터들과 협업하며 보다 공감각적으로 작품을 소개하고 작가들의 세계관을 세심하게 연출했다.

차가운 디지털 이미지의 시대, 디뮤지엄의 전시 <draw: 그리는 것보다 더 멋진 건 없어>는 손끝의 온기가 닿은 따뜻한 이미지를 통해 일상 속 특별한 이야기와 눈과 카메라가 포착하지 못하는 섬세하고 미묘한 감성을 전한다. 전시의 제목처럼 단순하지만 가장 ‘멋진’ 드로잉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Drawing is a way of coming upon the connection between things, just like metaphor in poetry reconnects what has become separated.”

“드로잉을 통해 사물 간의 관계를 찾는다.  
시 안에 담긴 은유가 단절된 세상을 이어주듯이.”

- 존 버거 John Berger -





04



05

04  
March, 2018 ©Oamul Lu

05  
Mellow Forest(낭만적인 계절을 걷다) 테마의  
Oamul Lu 작품 공간 ©디뮤지엄

06  
Oxford Boy 2, 2017 ©Unskilled Worker

#### 낭만적인 계절을 걷다\_오아물 루 Oamul Lu

오아물 루는 중국의 차세대 일러스트레이터로 대개 자연적 요소와 인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림을 그린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페인팅을 결합해서 만들어낸 다양한 빛깔의 자연과 그 속에서 노닐거나 때론 사유에 잠기는 인물들이 대표적이다. 오아물 루의 그림은 기본적으로 따뜻하다. 관객은 그 따뜻한 이미지 안에서 익숙하지만 특별한 곳으로 여행을 떠난 듯 편안함과 휴식의 기분을 느끼게 된다.

#### 상상 속에 가두다\_언스킬드 워커 Unskilled Worker

런던에서 활동하는 작가 언스킬드 워커는 독학으로 그림을 시작해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서 인기를 끌며 주목받았다. 그의 작업은 주변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폭넓은 소재에서 영감을 받아 이루어지는데, 암울한 시대를 환기하는 동시에 순수한 어린 아이의 세계로 초대 받은 듯한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특히 최근 발표한 초상화 시리즈는 작가가 보고 읽은 것, 선입견과 부당한 사건, 또는 분리된 가족 이야기 등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 전작보다도 더 서사적인 스타일로 진화하고 있다.

06



07

Inner Garden(상상 속에 가두다) 테마의 Unskilled Worker 작품 공간 ©디뮤지엄

08

Le secret I., 2018 ©Kristelle Rodeia

09

Sundaayyyssss, 2014 ©Stefan Marx

###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_크리스텔 로데이아 Kristelle Rodeia

크리스텔 로데이아는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주변 인물 또는 그를 둘러싼 세계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그리는 프랑스 출신의 일러스트레이터다. 그는 연필이나 잉크를 사용해 세밀한 밑그림을 그린 뒤 디지털 채색을 하는 방식으로 사실적인 묘사를 완성한다. 무엇보다 로데이아의 그림은 순수함과 아름다움, 연약함과 잔혹성, 경쾌함과 유머 등 다양한 은유와 상징이 어우러져 있다. 또한 과학적 일러스트레이션을 비롯해 역사, 신화, 만화, 예술 등에서 많은 영감을 받아 '환상적이고 시적 우주'로서의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 일요일을 그려주지\_슈테판 마르크스 Stefan Marx

슈테판 마르크스는 독일에서 활동하는 작가이자 크리에이터다. 청소년기 스케이트문화에 강한 영향을 받았고, 패션에 대한 관심으로 티셔츠에 즉흥적으로 흑백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감정을 말보다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티셔츠가 또래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자 17살이 되던 해에 티셔츠 브랜드 라우지 리빙(Lousy Livin)을 설립해 운영했다. 이후 사람과 동물, 풍경에 대한 유머러스한 드로잉, 캔버스 회화, 조각, 세라믹, 음반 커버 작업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이어왔다. ▼▼



07



08



09

# 죽음과 예술이 낳은 독점생산자

‘고흐’ 그림은 왜 비쌀까?



01

미술과 경제학. 가장 감성적인 활동과 가장 이성적인 학문의 조합은 매우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익숙한 대상을 색다르게 볼 때, 우리는 새로운 생각과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때론 작가의 눈으로 예술과 경제 원리를 마주할 때 우리는 한 차원 다른 예술적 안목을 갖추게 된다.



01

1990년 8천250만 달러 경매가를 기록한 빈센트 반 고흐 <Le Docteur Paul Gachet>, 1829-1909년 ©게티이미지

02

2017년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Salvator Mundi>, 1500년경 추정 ©Louvre Abu Dhabi

03

1941년에 개관한 미국 최대 규모의 미술관,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 내부 모습 ©서터스톡

### 죽음과 작품의 잔혹 공식

“지금 이 작품을 사두시면 좋을 겁니다. 곧 가격이 오를 테니까요. 화백님이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가끔 갤러리나 아트페어에서 원로 화가들의 작품을 관람할 때면 간혹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다. 이 말은 작가가 세상을 떠나면 작품 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말일 테다. 미술시장에서 통상 ‘작가가 작고하면 작품 값이 오른다’는 말은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으니 미술시장에서 그 작가의 작품은 당연히 공급이 중단되지만, 소비자들은 고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오히려 소장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게 된다. 이는 시장에서 해당 화가의 작품 수요 증가로 이어져 미술시장에서 작품의 희소성은 커지고 값이 오르게 된다.

### 순수 독점생산자 시장

미술시장은 미술작품을 생산하는 창작자와 그것을 즐기며 향유하는 소비자로 구성된다. 미술시장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생산자는 예술가들이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한 화가가 생산한 예술작품은 다른 어떤 화가들도 공급할 수 없는 유일한 가치가 있다는 점과 당사자만이 자신의 작품을 미술시장에 공급하는 유일한 생산자라는 점에서 순수 독점생산자(Pure monopolist)라고 할 수 있다.

화가가 작고하면 그 작품 공급 또한 중단되고 만다는 점에서 미술작품은 독특한 생산품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예술가가 창조한 작품은 그 자체로 시장에서 유일한 것이다. 세계와 역사가 인정한 작가들일수록 그 유일성이 인정받는다.

다른 예술 장르인 음악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블라디미르 호로비츠 같은 전설적인 피아니스트의 독주회는 그가 세상을 떠나는 즉시 공연시장에서 사라져 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 예술가들은 그들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독점적인 지위를 갖는 생산자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예술품도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그 경제적 가치가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장의 상황은 수요자들의 취향과 유행의 추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경기변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경제가 성장기이거나 반대로 불황에 빠지게 되면 미술시장은 경기변동에 따라 부침을 겪게 된다. 우리나라 미술시장도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직격탄을 맞은 것처럼 말이다.

빈센트 반 고흐(이하, 고흐)의 그림은 이 경제 원리를 잘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인상파 화가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고흐의 작품들은 1980~1990년대에 세계 경매시장에서 최고가를 경신한 바 있다. 고흐 그림의 주요 고객은 단연 일본 기업가들이었는데 이들의 수요로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 값이 텅달아 폭등하게 되었다. 당시 일본경제는 유례없는 최고의 호황을 구가하던 시절이었다. 1990년 5월 일본의 거품 경제가 한창일 당시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고흐의 작품 <폴 가세 박사> 초상이 8천250만 달러에 팔렸다. 낙찰자는 일본의 굴지의 제지회사 회장이었다. 이것은 고흐가 죽은 지 꼭 100년이 지난 후의 일이다. 그의 그림들, 가령 <붓꽃>이나 <해바라기> 같은 작품들이 미술 경매시장에서 7~8천만 달러의 값에 팔린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고흐가 생존 당시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정도다.

02



03



04

04  
21세기 들어선 2006년 당시  
최고 경매가를 기록한 잭슨 폴록  
<No.5>, 1948년 ©게티이미지



05

05  
천정부지로 치솟는 미술품  
가격은 대개 경매장 또는 화가나  
화상이 매기는 호가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Country auction at  
Hawes village Yorkshire England  
©서터스톡

21세기에 들어와서는 크리스트, 소더비 같은 경매장에서 1억 달러가 넘는 금액으로 팔린 그림들도 꽤 있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 부인의 초상>과 잭슨 폴록의 <No.5>와 같은 작품은 당시 경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2015년에는 파카소의 <알제리의 여인들>이 1억8천만 달러로 최고가였으나, 2018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 나온 <살바토르 문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으로 판명되면서 순식간에 4억5천만 달러에 팔렸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단색화 열풍에 힘입어 김환기의 푸른색 점화(點畵)인 <고요>가 65억 원에 팔리는 등 그의 그림들이 2015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기존 국내 작품 최고가였던 박수근 작품 <빨래터>의 46억 원 경매가를 경신했다.

#### 공급 · 수요 · 창의성의 삼위일체

보통 재화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생산자들이 시장에 공급량을 늘리게 된다. 늘어난 공급량은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을 제어한다. 반면 순수 독점생산자 체계의 미술시장에서는 특정 그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반드시 공급량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특히 타계한 유명 화가들의 그림은 공급 중단과 초과 수요의 압박이 맞물려 시장에서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미술시장에서 그림이 고가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질(Quality)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재화시장의 사례를 빗대 가령 냉장고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소비자들은 상품 품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그 사용가치나 효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예술품은 다르다. 생산과정에서 작품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투입(投入) 요소인 예술가의 창의성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이것이 곧 작품의 본원적 가치(Intrinsic value)를 창출한다. 수요자들은 일반 재화시장 상품과 달리 예술가의 고유한 창의성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술작품의 본원적 가치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미술시장의 구조에서는 공급자, 즉 그림 생산자인 화가가 가격 결정에 어느 정도 독점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독점력은 소비자들이 그림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할수록 더욱 힘을 얻는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미술시장은 구조적으로 예술품 창조자와 향유자들의 재화 가치에 관한 정보에 있어 비대칭성(非對稱性)이 존재하는 시장이라 할 수 있

다. 즉, 작품을 잘 해석하고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은 생산자 본인을 포함해 작가 주변의 소수의 사람, 특정 전문가에 한정되며 일반 대중 소비자들은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미술시장에서 가격 결정은 대개 화가나 화상(畫商)이 매기는 호가(呼價)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작품의 내재적 가치를 잘 모른 채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예술품 진가를 대중들에게 ‘시그널’ 해주는  
매개자가 있으면 시장 기능은 원활해지고  
소비자들은 거래에 있어 손해를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미술시장에서 큐레이터나  
미술평론가 또는 미술 전문기자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 미술시장 거품 만드는 정보 비대칭성

시장 참여자들 중 한 쪽이 정보가 부족한 비대칭적 시장 구조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애컬롭(George Akerlof) 교수가 고안한 레몬 시장(Market for Lemmons)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그는 ‘중고차 시장’을 모델로 삼아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을 분석했다. 중고차 시장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차에 관한 정보가 불공평하게 편재되어 있다. 즉, 판매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중고차의 결함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게 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지배하는 시장이다.

애컬롭 교수의 이론은 곧바로 미술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 화가 이중섭의 작품들에 관한 위작 논란이나 최근 이슈가 된 여러 유명 작가들의 위작 감정 파문도 이러한 레몬 시장의 특징을 가진 미술시장에서 생긴 시장실패(Market failure) 사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작품 가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주는 객관적인 전달자나 매개자가 예술시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술품 진가를 대중들에게 ‘시그널’ 해주는 매개자가 있으면 시장 기능은 원활해지고 소비자들은 거래에 있어 손해를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미술시장에서 큐레이터나 미술평론가 또는 미술 전문기자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가장 가치 있는 경제코드, 남다른 안목

예술작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생산자 자신 밖에 없을 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술가들의 작품이 생산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인정받고 시장가치를 지니게 된 경우가 많다. 물론 영영 일반 대중이나 시장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사장(死藏)되는 경우도 있지만 후대에 남는 걸작은 언젠가는 안목 있는 누군가를 통해 빛을 보게 된다.

그림에 대해 문외한인 이들도 고호 이름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된 데에는 단 한 명의 조력자의 힘이 컸다. 동생 테오다. 고호가 생을 마감하기 5개월 전 400프랑(요즘 가치로 약 100만 원)에 팔린 유일한 그림 〈붉은 포도밭〉마저도 본인이 아닌 동생 테오가 화상을 통해서 판 것이다. 고호 회고전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 15년이 지난 1905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처음 열렸는데 그때서야 고호의 작품이 제대로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고호의 동생 테오의 끈질긴 노력이 없었다면 그의 작품들은 훼손됐거나 사장된 채 빛을 보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 ■■



# 1

## 틀을 깬 도전 살아있는

### 현대차 정몽구 재단 '교사 창의예술교육 연수' 예술 교육 현장

#### 교사 창의예술교육 연수

**who**

초·중등 교사 80명

**what**

영국 예술교육 전문가 그룹 아티즈(ARTIS)와 함께 교사 스스로 교과서 밖 교육안을 개발하는 연수 프로그램



01  
02



#### "협동작업 통해 함께하는 삶을 배웠어요"

해남, 창원, 평택 등 전국각지에서 참여한 초·중등 교사 50명이 강당을 이리저리 뛰고 구르며 온몸으로 배움을 체험했다.

“몸을 많이 쓰는 연수인 것은 알고 오셨죠? 파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스태프에게 얘기해주세요. 넉넉히 준비되어 있습니다(하하).”

진행자의 유티 있는 진담은 곧 현실이 됐다. 여기저기 숨 고르는 소리와 함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참가 교사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이곳은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한국메세나협회가 진행하는 '제3회 창의예술교육 연수' 현장이다. 책 속에 박제된 이론이 아닌, 오감을 통한 체감 그 자체를 강조하며 교과서에 없는 창의적인 교육안을 교육자 스스로 개발하도록 돕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영국 예술교육 전문가 그룹 아티즈(ARTIS)와 함께하는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참여 교사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2017,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연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2박3일 심화연수도 개최됐다.

2004년 영국에서 설립된 예술교육 전문 비영리재단 아티즈는 학교 주요 교과 수업에 예술 활동을 통합시켜 새로운 교육 경험을 만든다. 아티즈가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은 런던, 버밍엄, 맨체스터, 요크셔 등에서 약 5만 명의 어린이에게 교육되고 있다. 이를 위해 아티즈는 14년간 130만 파운드(19억 원)를 투자해 수준 높은 예술교육 전문가를 육성해왔다고 한다.

첫 번째 프로그램인 '스타 없이, 대본 없이, 괴물들과 기계들'은 사람의 몸으로 상황이나 사물을 표현하는 시간이다. 끄고려 앉아 손가락을 머리 위로 흔들며 가스레인지 불꽃을 표현하기도 하고, 바닥에 엎드려 큰 대자로 엎드려 호랑이 카펫을 형상화 했다. 머리속으로 구현한 이미지를 몸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상상력은 극대화 된다. 아티즈의 멘토 스투어트 니콜라스 바터(Stuart Nicolas Barter)는 연수자들의 구체적인 특징을 언급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닌 자존감을 높여주는 교육의 일부였다.



03

01  
열띤 호응과 참여로 '교사  
창의예술교육 연수'에 참가한  
80명의 교사들



04

02-03  
구르고 뒹굴며 온몸으로 상황을  
표현하는 연수 참가자들




05

04-05  
살아있는 창의예술교육에 관한  
아티즈 멘토의 열띤 강의 시간

연극 수업에 이어 진행된 '목소리를 찾아서, 그래픽 악보 만들기' 시간에는 두 손으로 쓰레기통을 두드리기도 하고, 종이를 귀에 대고 거칠게 구기며 소리를 탐색했다. 참가자들은 '주변 사물을 활용해 작곡하라'라는 미션에 당황한 기색 없이 저마다 독창적인 방법으로 소리를 만들어냈다. 이 프로그램은 움직임, 연극, 음악 등 각 요소가 혼합된 형태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평택 이화초등학교 방미경 선생은 "경쟁하고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 아닌 공동체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교육 방식을 수업에 접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며 이번 연수의 효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2019년 연수에는 새롭게 심화과정이 추가됐다. 심화과정은 기존에 참여했던 참가자 중 우수 교안을 발표했던 선생님 30명이 참가하는 수업이다. 연수에 참여한 광덕초등학교 김향희 선생은 "지난해에는 교과목에 적용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다면 심화과정에서는 한 개의 활동으로도 다양한 수업을 구성하는 방식과 아이디어를 채득할 수 있었다"며 교안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 권오규 이사장은 "창의예술교육 연수는 인성교육진흥법, 자유학기제 도입 등 변화한 교육 패러다임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시작됐으며,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걸맞게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수를 통해 발굴된 우수한 수업안은 실제 수업에서 연수의 결과물을 구현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2017년과 2018년 선발된 우수 수업안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수업으로 진행된 바 있다. '교사가 변해야 학생이 변한다'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기획의도처럼 변화하는 시대를 리드할 새로운 교사의 탄생을 기대된다. 



# 2

## 문화예술로 잡(Job)하라!

GS칼텍스  
'취준 동고동락(同苦同樂) 캠프'

### "취업이 주는 무게에 지치지 않는 희망의 에너지를 그렸어요"

평소 귀 기울이지 않는 마음속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135명의 청년들이 모였음에도 진중한 숨소리와 '속속' 그림 그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울리는 이곳은 'GS칼텍스 취준 동고동락(同苦同樂) 캠프' 현장이다.

한국메세나협회와 GS칼텍스가 함께 기획한 취업준비생 문화예술 힐링 캠프 'GS칼텍스 취준 동고동락'이 2019년 2월 26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시작됐다. GS칼텍스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재원을 활용해 진행되는 'GS칼텍스 취준 동고동락'은 2박 3일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해 취업 스트레스로 마음이 지친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자존감과 자신감 회복을 도왔다.

첫 번째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와인과 함께 자신의 마음을 읽어보는 '와인 & 캔버스'였다. 수업을 기획한 살래 표현예술심리치유센터 김현진 센터장은 "취업과 같은 장기 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탄력성"이라며 "스트레스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상처를 회복하고 나를 위로하는 힘은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키워질 수 있다"고 수업의 목표를 밝혔다.

수업은 수십 가지 감정이 적힌 종이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을 고르고, 그 감정에 어울리는 색을 고르는 것으로 시작했다. 취업난으로 인해 '주눅들다'를 고른 청년은 회색을, 캠프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나 '반갑다'는 마음을 고른 청년은 밝은 노란색을 선택했다. 그렇게 고른 물감을 물이 담긴 작은 풍선으로 캔버스에 찍어 배경색을 칠했다.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는 부담감을 덜기 위한 장치였다. 배경색을 다 칠한 참가자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미션은 '나를 상징하는 나무를 상상하고 그려보는 것'이었다. 눈을 감고 나무의 나무를 머리속으로 그린 참가자들은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



### GS칼텍스 취준 동고동락 캠프

**who**  
청년 취업준비생 135명

**what**  
그림, 연극, 강연 등을  
통해 취업준비생의 정서적  
안정감과 자신감 회복을 돕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 01 내면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자신감을 되찾아가는 문화예술 수업 현장
- 02 공유와 공감으로 서로에게 힘을 불어넣은 '나의 이력곡' 발표 현장
- 03 청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 김창욱 교수의 특강 시간
- 04 와인과 함께 자신의 마음을 읽어보는 '와인 & 캔버스' 프로그램
- 05 맞춤형 '퍼스널 컬러 테스트' 시연에 참여한 참가자들





01



02



03



04



05

했다. 그림 실력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렇게 완성한 그림에는 취업에 임하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참가자 한지영 씨는 “나무 위에 바람을 그려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자신의 그림을 설명했다. 똑같은 모양의 나무들이 한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그림을 그린 신지민 씨는 “어차피 취업준비생들은 다 비슷하니 기죽지 말자”라는 다짐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뿌리와 가지는 많지만 열매 없는 나무를 그린 김현우 씨는 “열심히 준비했지만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한 것 같다”며 열매 옆에 ‘다 잘 될 거야’라는 의미의 영화 속 대사를 그려 넣어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표현했다.

수업을 마친 김현진 센터장은 “참가자들이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관찰 결과를 진솔하게 표현했다”며 “그림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서로 배려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마지막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나의 이력극’도 열띤 호응을 얻었다. ‘와인 & 캔버스’를 통해 감정을 이끌어내는 훈련으로 참가자들은 조를 짜서 각자의 이야기를 글로 써 내려갔다. 취업준비생들이 직접 체험한 취업 과정, 일상, 학교생활 등 다양한 상황에서 느낀 현실들은 글과 연극으로 완성돼 캠프가 종료되는 날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캠프 이튿날 강원국, 최윤아 작가의 글쓰기 강연, 현업 종사자 멘토링, 퍼스널 컬러 테스트를 통한 증명사진 촬영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경험했다.

GS칼텍스 CSR추진팀 박필규 팀장은 “취준 동고동락 캠프가 청년들의 심리적인 에너지를 문화예술로 채워 취업 과정을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하며 “이 캠프는 올해 7월과 8월에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

**"공연분야 진로를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워크숍"**

15명의 대학생들이 워크숍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으며 장점과 단점, 추가되면 좋을 점 등을 토론했고 있다. 이날의 워크숍은 미래의 희곡 작가를 꿈꾸는 대학생들과 신진 희곡작가이자 연출가인 윤성호 작가가 함께하는 '두산청소년아트스쿨' 희곡 워크숍 현장이다.

두산청소년아트스쿨은 두산연강재단과 한국메세나협회가 6년간 진행하던 두산어린이아트스쿨을 새롭게 재편해 만든 문화공헌 프로그램이다. 만 16세~24세 문화소외계층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예술체험과 함께 공연예술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진로 체험을 기회를 제공한다.

2019년 두산청소년아트스쿨은 창작워크숍과 아티스트 토크로 구성했으며 윤성호 극작가와, 김수정 연출가, 이승희 국악창작자가 참여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며 1~2월에 진행되는 1차 워크숍에는 만 19세~24세 청소년, 3~4월에 진행되는 2차 워크숍에는 만 13세~18세 청소년들과 함께 한다.

첫 번째 워크숍을 담당한 윤성호 작가는 이론수업과 함께 직접 10분짜리 희곡을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쓴 작품은 연극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들의 입을 통해 작품이 읽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리딩에 앞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희곡의 전 단계인 플롯(Plot)을 써서 참가자들이 그룹으로 나누어 토론을 했다. 각자가 써온 플롯의 장단점을 함께 고민하면서 자신의 글 역시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플롯에 대한 토론 워크숍에 이은 Q&A 시간에는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오갔다. "직업으로의 작가는 먹고 살기 어렵가?", "작가로의 첫 시작은 어떻게 할 수 있었나?", "작품의 영감은 어떻게 받는가?", "각종 희곡은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는가"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참가자들의 질문에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조언들을 덧붙인 윤성호 작가는 "글을 읽고 쓰는 행위의 즐거움을 알 수 있도록 체험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산연강재단의 박찬중 부장은 "청소년들의 창작 표현의 욕구를 자극하고 자연스럽게 예술적 즐거움을 느끼게 함으로써 미래의 새로운 관객 수요를 만드는 데 두산청소년아트스쿨이 역할을 할 것이다"고 프로그램의 의미를 전했다. **MM**

**두산청소년  
아트스쿨**

**who**  
만16세~24세의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및  
대학생

**what**  
창작워크숍과 아티스트  
토크로 구성되며 1~4월까지  
진행

**01**  
참가자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멘토의 진솔한 조언들이 오고간  
Q&A 시간

**02**  
직접 희곡 플롯을 구성해보는  
참가자

**03**  
윤성호 극작가와 함께하는 희곡  
워크숍 현장



01



02



03

# 3 미래 희곡 작가들의 오아시스 열정 워크숍 현장

두산연강재단 '두산청소년아트스쿨-희곡 워크숍'



# 4

## 황금 알을 함께 낳을 엔젤투자자를

### 찾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 현대차 정몽구재단 'H-온드림 데모데이'

####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미래 유망기업 발굴해요”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글로벌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대외 투자유치에 나섰다. 지난 2월 20일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페럼타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공영운 현대자동차그룹 사장, 권오규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장, 이형근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 등 기업 및 재단 관계자, H-온드림 창업팀과, 기관·벤처 투자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H-온드림 데모데이(Demo Day)'를 개최했다.

'H-온드림 데모데이'는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단법인 씨즈, 한국메세나협회 등과 함께 진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 기업 육성 프로그램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 오디션'을 통해 선발·육성된 유망 사회적기업을 적극 알리고 투자 유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일자리, 고령화, 환경오염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익을 얻고, 사회에 재투자하는 사회적기업가의 정신을 격려한다”며 “정부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기업을 차리도록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높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 'H-온드림 데모데이'에는 사업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는 '엑셀러레이팅(Accelerating) 단계'의 6개 팀과 향후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인큐베이팅(Incubating) 단계' 3개 팀 등 총 9개 팀이 초청됐다. 이날 초청된 9개 팀들에게는 'H-온드림 데모데이' 초청에 앞서 각 팀별 최대 1억 원의 창업 지원금과 더불어 창업 및 전문가들의 컨설팅(자문)이 제공됐다.

특히 지난 3개월 동안 크립톤, 임팩트스퀘어, 크레비스파트너스 등 기업 성장 전문 기업의 집중적인 멘토링을 통해 사업 역량을 크게 높인 엑셀러레이팅 단계의 6개 기업은 이날 사업현황과 계획 발표를 통해 향후 성장 가능성을 적극 홍보하며 투자유치에 나섰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투자자가 관심 있는 기업과 일대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 인터뷰 세션도 마련됐다.

현대자동차그룹 최재호 부장은 “올해로 8년째를 맞는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 오디션'과 이를 통해 육성한 사회적기업이 최근 사회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에 큰 성과를 내고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투자유치행사, 사회적 기업의 제품 판매 채널 확대 등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MM**

#### H-온드림 데모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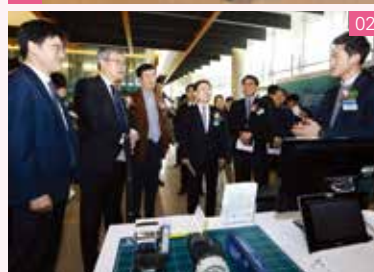
**who**  
사회적기업 육성 프로그램 'H-온드림 사회적 기업 창업 오디션'을 통해 선발·육성된 9개 팀과 엔젤투자자

**what**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 오디션을 통해 선발·육성된 유망 사회적기업을 적극 알리고 투자 유치의 장 마련

**01**  
H-온드림 엑셀러레이팅 단계 6개 팀과 인큐베이팅 단계 3개 팀이 한 자리에 모였다

**02**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공영운 현대자동차그룹 사장, 권오규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장 등의 참여와 관심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행사 현장

**03**  
사업 현황과 계획을 발표하는 엑셀러레이팅 단계 참가 기업







한미약품 후원으로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 조성을 위해 7회째 진행된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공연 현장



# 빛의 소리로 사랑을 나눠요

## 한미약품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지난 2월 23일 여의도 KBS홀에서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빛의소리 나눔콘서트>가 진행됐다. 이번 공연은 장애아동 예술교육을 위한 빛의소리 희망기금 조성 콘서트로, 한미약품과 서울대 의대 출신 오케스트라 Medical Philharmonic Orchestra(이하 MPO)가 2013년부터 공연을 진행해오고 있다. 7회째를 맞은 이번 공연은 춘천시립오케스트라 이종진 상임지휘자와 함께 박제성 클래식 평론가의 사회로 진행됐다.

빛의소리 희망기금으로 6년째 카혼(안데스 지역에서 사용하는 타악기) 교육을 받고 있는 청록원의 '블루엔젤스 콰이어'가 세계의 걸작행진곡 메들리를,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합주단 '어울림단'이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 1악장'을 연주하며 공연의 막을 열었다. 이어진 MPO 공연 1부에서는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막 서곡', 피아노 협주곡 제22번 3악장, '교향곡 제40번 1악장'을 연주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2부에서는 소프라노 김순영이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꿈속에 살고 싶어라' 와 오페레타 <주디타> 중 '너무나 뜨겁게 입맞춤하는 내 입술'을 MPO의 멋진 선율에 맞춰 불러 열띤 환호를 받았다.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는 공연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에서 공모한 장애아동·청소년 문화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에 예술교육기금을 전달한다. 음악교육의 연속성을 위해 1회 선정기관인 청록원과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 6년째 기금을 전달했으며, 이 기금으로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은 4개 영역(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의 합주단 '어울림단'을, 청록원은 중증장애청소년 카혼 연주팀인 '블루엔젤스 콰이어'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한미약품과 MPO는 이번 공연에서도 매칭펀드 형식으로 기금을 조성해 장애아동의 예술교육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MPO 박민종(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단장은 "어느덧 7회째를 맞이한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는 해를 거듭할수록 견고해지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관객들에게 호응을 얻으며 희망의 정신을 불어넣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소외계층에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랑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우중수 사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빛의소리 나눔콘서트가 우리 사회에 작은 희망의 불을 켜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한미약품은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제약회사로서 사회적 책임도 충실히 감당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 Start! 2019 예술지원 매칭펀드

중소·중견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활성화를 위한 2019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이 3월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2007년 시작된 이래 올해 13년째를 맞은 예술지원 매칭펀드는 중소기업이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해 예술단체에 추가로 펀드를 지원하는 Matching-Grant 프로그램이다.

## 2019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안내

### 신청접수

2019년 3월 4일(월) ~ 펀드 소진 시까지

**1차 심사** : 4월 둘째 주 예정

**1차 교부설명회** : 4월 셋째 주 예정

\*사업 신청은 상시 접수 받으나,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진행

### 신청자격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크면서 매출액이 1조원 이하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도 참여가능(단위 은행 등 업종 제한 없이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면 가능)

**예술단체** 문예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임의단체, 경영 실적 공시가 가능하거나 창작활동 실적 및 지속성이 인정되는 단체, '매칭펀드 예술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행사 주관단체 및 문화예술 인프라

### 제출서류

**기업** 기업 지원신청서 1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1부, 손익계산서 1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신청서 1부, 장부가액 확인서 1부(현물기부의 경우)

**예술단체** 예술단체 지원신청서 1부(신청 프로그램 소개자료 추가첨부 가능)

※기업 및 예술단체 지원신청서는 한국메세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

### 심사기준

**기업**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역량, 지속지원 가능 여부 등

**예술단체** 신청프로젝트 계획, 연간활동계획, 과거 활동실적, 기업 교류협력프로그램의 충실도, 사회기여프로그램의 시행 정도 등

### 지원금액

**중소기업** 펀드교부금과 기업지원금의 1:1 매칭을 기본으로 하되 '매칭펀드 예술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펀드교부금 규모는 달라질 수 있으며, 상위금액의 쿼터가 소진될 경우 하위금액의 쿼터로 조정될 수 있음

**중견기업** 펀드교부금과 기업지원금의 1:2 매칭을 기본으로 하되 상위금액의 쿼터가 소진될 경우 하위금액의 쿼터로 조정될 수 있음

### 참고사항

\* 1개 기업이 최대 2개 예술단체를 지원할 수 있음

\* 기업의 지원금은 지원금 전용 통장으로 지급되며 바로 사용 가능

\* 추가로 매칭되는 펀드교부금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함

### 접수

fund@mecenat.or.kr

### 문의

A&B팀 배소윤, 02-786-9657, sybae1015@mecenat.or.kr



피아니스트 손열음과 스위스 명문 악단의 만남  
롯데문화재단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와 더불어 스위스를 대표하는 관현악단,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가 4월 7일 2014년 이후 5년 만에 한국 관객과 만난다. 2017년부터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수장을 맡고 있는 조나단 노트가 지휘봉을 잡고,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협연자로 나서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Op 54과 말러의 교향곡 6번 <비극적> 등을 연주한다.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는 프랑스 출신의 마에스트로 에르네스트 앙세르메가 1918년 창단한 뒤 오늘날까지 꾸준히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스위스의 명문 악단이다. 창단 이래 반세기 동안 앙세르메 체제 하에서 세계적인 악단으로 발전해 온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는 투명하고 명

징한 음색과 치밀하고 정교한 짜임새를 특징으로 한다. 앙세르메가 세상을 떠난 후 오케스트라가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아르맹 조르당을 비롯한 여러 마에스트로의 재건 노력에 힘입어 오늘날 예전의 확고한 전통과 명맥을 다시금 지켜오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밤베르크 심포니를 이끌었던 실력파 지휘자 조나단 노트가 수장을 맡고 있으며, 우리에게서 서울시향 악장으로 친숙한 바이올리니스트 스베틀린 루세브가 악장으로 활약 중이다.

새로운 지휘자와 악장의 부임 이후, 한층 의욕적인 행보를 보여주며 또한 번의 부흥기를 맞이한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의 내한은 지휘자 조나단 노트와 함께하는 첫 무대라는 의미에서 더욱 주목을 끈다.



## 명작 오페라가 전하는 감동의 전율

### 2019 세아이운형문화재단 음악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오페라 버킷> 개최



지난 2015년부터 반드시 들어야 할 오페라 작품을 선정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오페라 버킷>이라는 타이틀로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 2019 세아이운형문화재단 음악회가 오는 3월 2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오랜 기간 오페라를 사랑하고 후원해 온 세아그룹故 이운형 회장의 뜻을 기려 기획·진행하게 된 정기 음악회다. 올해 '오페라 버킷'에 담은 작품은 '오페라의 제왕(帝王)'이라 불리는 베르디의 <리골레토>다. 이 작품은 베르디의 여러 걸작 중에서도 손꼽히는 명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귀족들이 버젓이 부패를 일삼아도 책임을 묻지 않는 세상을 비판하는 가운데 진하게 피어나는 부상에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정서를 담고 있다.

오페라 장르가 일반 관객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좋은 공연이 주는 울림은 예술 장르에 구애 받지 않고 감동과 전율을 선사한다.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은 관객이 온전히 몰입해 즐길 수 있도록 연출·무대·연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완벽한 공연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 마음 두드리는 봄날의 그림동화

### 남이섬교육문화그룹 <그림책NOW : 세계의 일러스트레이션을 만나다> 전시

남이섬교육문화그룹이 오는 4월 12일부터 서울숲 갤러리아포레 더 서울라이트룸 5관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작품들을 한 데 모은 전시를 개최한다.

<그림책NOW : 세계의 일러스트레이션을 만나다> 전시에서는 공모전, 시상식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110여 명 작가의 작품 300여 점을 선보인다. 그림책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Hans Christian Andersen Award)'의 2018년 일러스트레이션 부문 수상자 이고르 올레니코프(Igor Oleynikov, 러시아)의 원화 작품과, 아시아 최대의 국제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나미콩쿠르(NAMI CONCURS)' 2019년 수상작, 세계적 권위의 '브라티슬라바 일러스트레이션 비엔날레(Biennial of Illustration Bratislava: BIB)'의 2017년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작가의 손길에 고스란히 느껴지는 원화부터 작품에 담긴 스토리와 의미를 모티브로 또 다른 예술작품으로 표현한 영상, 조형물, 미디어아트까지 '액자 속 그림'이 아닌 그 이상의 볼거리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유망 신진 작가 Top10 발굴·지원  
파라다이스문화재단, '파라다이스 아트랩' 당선작 발표

파라다이스문화재단은 지난 1월 30일 예술 창·제작 지원사업 '파라다이스 아트랩(Paradise Art Lab)'을 통해 총 10개 지원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파라다이스 아트랩'은 장르에 경계를 두지 않고 예술과 기술을 융합하는 작업을 지원하는 파라다이스문화재단의 테마형 지원사업이다.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350여 점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0개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 당선작은 권병준, 권하윤, 김영주&조호연, 김윤철, 양아치, 열혈예술청년단, 이장원, 클로잉, 팀보이드 등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신진 작가들의 작품으로, 전시와 공연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장르와 재창작부터 신작까지 폭넓은 창작물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작품에는 총 3억 원의 제작비 및 프로듀싱 혜택이 제공되며 오는 하반기 쇼케이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파라다이스문화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예술가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최윤정 이사장은 "파라다이스 아트랩을 통해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국내 작가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엿보았다"며 "앞으로도 작가들이 역량을 맘껏 발휘하고 국내외로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PAL**  
PARADISE ART LAB

**클래식 꽃피우는 서른 번째 봄  
한화와 함께하는 <2019 교향악축제>**

SAC CLASSIC FESTIVAL <교향악축제>가 서른 번째 음악회로 관객을 맞이한다. 매년 4월 싱그러운 봄에 찾아오는 <교향악축제>는 1989년 음악당 개관 1주년 기념으로 첫 선을 보인 이래 예술의전당을 대표하는 기획 음악회 시리즈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2000년부터 한화그룹과 함께 더욱 풍성하고 화려한 교향악단의 축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올해에는 교향악축제 30주년을 맞아 총 18개 교향악단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4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지휘 정인혁, 피아노 협연 이진상)을 시작으로 4월 21일 아시아 최고의 교향악단 중 하나로 손꼽히는 중국 국가대극원 오케스트라(지휘 이 장, 첼로 협연 지안 왕)까지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의 향연이 이어진다. 이 장의 지휘와 첼리스트 지안 왕의 협연을 통해 대국의 웅장한 색채를 경험해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로베르 르빠주 자전적 무대  
LG아트센터 <887>**



마법 같은 무대와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으로 현대 연극의 경계를 확장시켜온 거장 로베르 르빠주(Robert Lepage)가 한국 무대에서 처음으로 직접 연기까지 선보인다. <안데르센 프로젝트>, <바늘과 아편>, <달의 저편> 등 자신이 연출한 거의 모든 작품의 초연에 직접 출연해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였던 로베르 르빠주는 자전적 이야기에 바탕을 둔 최신작

한화와 함께하는  
**2019 교향악축제**  
교향악축제 30주년, 한화와 함께한 20년!

4.1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지휘 정인혁, 피아노 협연 이진상)  
4.2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지휘 정인혁, 피아노 협연 이진상)  
4.3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지휘 정인혁, 피아노 협연 이진상)  
4.4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지휘 정인혁, 피아노 협연 이진상)  
4.5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지휘 정인혁, 피아노 협연 이진상)  
4.6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지휘 정인혁, 피아노 협연 이진상)  
4.7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지휘 정인혁, 피아노 협연 이진상)  
4.8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지휘 정인혁, 피아노 협연 이진상)  
4.9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지휘 정인혁, 피아노 협연 이진상)  
4.10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지휘 정인혁, 피아노 협연 이진상)  
4.11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지휘 정인혁, 피아노 협연 이진상)  
4.12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지휘 정인혁, 피아노 협연 이진상)  
4.13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지휘 정인혁, 피아노 협연 이진상)  
4.14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지휘 정인혁, 피아노 협연 이진상)  
4.15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지휘 정인혁, 피아노 협연 이진상)  
4.16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지휘 정인혁, 피아노 협연 이진상)  
4.17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지휘 정인혁, 피아노 협연 이진상)  
4.18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지휘 정인혁, 피아노 협연 이진상)

**2019.4.2(화)-4.2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9 교향악축제**

- 일시 2019.4.2~21
-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887>을 통해 연출가로서 뿐만 아니라 재능과 경륜을 겸비한 배우로서 면모를 확인시켜줄 예정이다.

연극 <887>은 로베르 르빠주가 어릴 때 살았던 퀘벡 시티의 주소 '887 Murray Avenue'에서 가져온 제목으로 단순한 장소가 아닌 7명의 대가족이 함께 살던 작은 집, 개성 넘치는 이웃들, 익숙한 동네와 거리, 도시에 얽힌 모든 기억들이 보관된 내면의 상징적 공간을 의미한다. 빙글빙글 돌아가며 여러 공간으로 변신하는 무대 세트와 기억을 재현해내는 듯한 다양한 미니어처 모형들, 낡은 상자 속에 묵혀있던 옛날 사진과 신문 이미지들은 누군가의 추억이자 아웅다웅 함께 살아온 공동의 역사다. 로베르 르빠주는 연극을 통해 과거 그리고 현실에 대한 아련하고도 복잡한 감정을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불러낸다. **MM**

**연극 <887>**

- 일시 2019.5.29~6.2
- 장소 LG아트센터




## 파라다이스문화재단 최윤정 이사장, 협회 부회장 선임 한국메세나협회 이사회 · 정기총회 개최

한국메세나협회는 2월 13일 오전 11시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2019년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1시 바이올렛룸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20여 명의 협회 임원이 한자리에 모여 2018년 한 해 동안의 사업들을 결산하고, 올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파라다이스문화재단의 최윤정 이사장을 협회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최윤정 이사장은 2013년부터 파라다이스문화재단을 이끌고 있다. 최 이사장은 신진 미술작가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인 '파라다이스 집 (PARADIS ZIP)'과 2,700여 점의 미술작품 설치로 큰 화제를 모은 아트

테인먼트 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등 새로운 문화예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제27회 몽블랑 문화예술 후원자상의 한국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로써 한국메세나협회는 협회장인 일신방직 김영호 회장을 비롯, 부회장 17인, 이사 13인, 감사 2인으로 총 33명의 임원진이 이끌어가게 됐다.

뒤이어 11시 30분 오키드룸에서 진행된 정기총회에는 회원사 249명 중 80개 사, 8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사업결산 보고 및 2019년 계획을 회원들과 공유하고 협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인사말을 전하는 한국메세나협회 김영호 회장



파라다이스문화재단 최윤정 이사장

March 8

**연극 <자기 앞의 생>**

2019.2.22~3.23 / 명동예술극장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프랑스 콩쿠르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로맹 가리의(필명 에밀 아자르)의 소설 <자기 앞의 생>이 연극으로 각색돼 관객들을 만난다. 파리 슬럼가의 한 아파트를 배경으로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홉살 소년 모모와 오갈데 없는 아이들을 키우는 유대인

보모 로자의 관계를 통해 인종, 종교, 세대를 뛰어 넘는 따뜻한 인간애를 보여준다. 로자 역에는 무대와 브라운관을 오가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 양희경과 국립극단 시즌단원 이수미가 더블 캐스팅됐다.

**연극 <고독한 목욕>**

2019.3.8~24 / 백성희장민호극장

차세대 극작가를 소개하고 시의성 있는 창작극을 선보이는 국립극단 젊은극작가전 세 번째 작품으로 안정민 작가의 <고독한 목욕>이 백성희장민호극장 무대에 오른다. 국립극단의 창작희곡 온라인 상시투고 제도 '희곡우체통'을 통해 발굴된 작품으로 지난해 낭독회에서 '비극적이면서도 아름답다'는 평을 받았다. 인혁당 사건으로 희생된 아버지를 회상하며 꿈과 현실,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들의 심리가 주목 받는 젊은 연출가 서지해를 통해 감각적으로 그려진다.



**국립무용단 <시간의 나이>**

2019.3.15~17 / LG아트센터



프랑스 국민 안무가라 불리는 조세 몽탈보와 협업한 샤요국립극장과와 공동제작 작품. 전 세계 무용극장의 성지라 불리는 샤요 국립극장의 시즌 폐막작으로 올라 전석 기립 박수로 환호시킨 데 이어 프랑스 크레테유 예술의 집의 시즌 개막작으로 초청됐다. 유럽 무용계의 뜨거운 리브콜이 쇄도하는 <시간의 나이>가 드디어 LG아트센터 무대에 오른다.

**위대한 첼로: 첼리스트 로런스 레서 with 피아니스트 손민수**

2019.3.21 / 금호아트홀

첼리스트의 첼리스트, 가장 로런스 레서가 찾아온다. 차이



콥스키 콩쿠르 우승자이자 전설의 첼리스트 카사도와 피아티그르스키를 사사한 최고의 첼리스트 로런스 레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자 강렬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지닌 피아니스트 손민수와 함께 '버르토크 랩소디'와 '바흐 독주곡', '베토벤의 변주곡'과 '라흐마니노프 소나타'를 연주한다.

**관현악시리즈 III**

**<양방언과 국립국악관현악단 - Into The Light>**

2019.3.21 / 롯데콘서트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음악감독을 맡아 세계를 감동시킨 크로스오버의 거장 양방언이 국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국악 관현악의 새 지평을 연다. 그동안 '프론티어', '프린스 오브 제주' 등 대표곡들이 국악으로 편곡돼 자주 연주돼 왔지만, 양방언이 국악관현악곡을 작곡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태국 한지호 듀오 리사이틀**

2019.3.22 /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2014 카잘스콩쿠르 아시아 최초 우승자 문태국, 같은 해 ARD 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에 오른 한지호가 워너 클래식 음반 발매를 기념하는 공연으로 다시 만났다. 한국의 젊은 연주자들이 잇달아 메이저 음반사의 러브콜을 받는 가운데, 워너 클래식에서는 최근 임지영, 김보소리, 지용에 이어 떠오르는 첼리스트 문태국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데뷔 음반을 발매하게 됐다. 지난해 6월, 두 연주자의 환상 호흡을 경험했던 관객이라면 이번엔 음반과 함께 더욱 성숙해져 돌아온 이번 무대를 놓칠 수 없을 것이다.

**연극 <대학살의 신>**

~2019.3.24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남경주, 최정원, 이지하, 송일국 주연의 연극 <대학살의 신>이 지난 2017년과 동일 캐스팅으로 또 다시 무대에 올랐다. 이 연극은 지식인의 허상을 유쾌하고 통렬하게 꼬집는 것으로 유명한 프랑스 작가 야스미나 레자의 작품으로 부유함, 고학력, 충만한 자신감, 품위, 고급스러움으로 포장된 중산층과 지식인의 이중성에 대해 유쾌하면서도 날카롭고 강력한 펀치를 날린다.



**국립오페라단 <마술피리>**

2019.3.28~31 /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국립오페라단이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의 대표적인 오페라 <마술피리>를 선보인다. <밤의 여왕> 아리아를 비롯

해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한 <마술피리>는 오페라를 처음 경험하는 관객들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다. 2018년 국립오페라단이 선보인 가족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에 참여한 독일 연출가 크리스티안 파데와 디자이너 알렉산더 린틀이 합류해 다시 한 번 호흡을 맞춘다.



**콘서트 오페라 <돈 조반니>**

2019.3.29~30 / 롯데콘서트홀

2017년 <여자는 다 그래>, <2018년 <피가로의 결혼>에 이은 '다 폰테 3부작' 프로젝트가 2019년 <돈 조반니>를 통해 마침내 완결된다. 이탈리아 출신의 시인이자 대본가였던 로렌초 다 폰테의 대본을 바탕으로 한 모차르트의 오페라 세 편을 한 해에 한 작품씩 만나본다는 취지로 시작된 프로젝트로, 오페라극장이 아니라 콘서트홀에서 만나는 '콘서트 오페라'라는 포맷을 통해 더욱 특별한 음악회로 탄생했다. 오페라 <돈 조반니>는 바람둥이 백작 돈 조반니를 중심으로 희로애락의 표정을 담은 다채로운 캐릭터들이 밀고 당기며 위트 있는 극을 전개해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국립현대무용단 <스웨덴 커넥션 II>**

2019.3.29~31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페르난도 멜로와 국립현대무용단의 협업작품인 <두 점 사이의 가장 긴 거리>가 재공연되며, 장혜림 안무가와 스코네스 댄스시어터가 협업한 <제(祭)>가 아시아 초연된다. 또한, 스웨덴 안무가 리디아 보스의 <군중의 스냅샷> 작품이 초청돼 북유럽 현대무용의 움직임과 안무적 접근을 통해 관객에게 한국-스웨덴 양국의 문화적 측면을 다루는 폭넓은 교류의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발레단 <Dance into the Music>**

2019.3.29~31 / LG아트센터

음악과 발레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갈라 형식의 공연으로 국립발레단 클래식 레퍼토리 하이라이트와 다양한 소품,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 'KNB Movement Series'에서 주목받은 단원들의 안무작을 라이브 연주와 함께 한 무대에서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지젤'과 '마타 하리의 2' 막 주요 장면, 안무가 김용걸의 'The Road', 존 크랭코의 'Legende', 이영철의 신작 'Baile de Corte' 등 다양한 작품들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더불어 수석무용수 이영철의 해설도 준비돼 있다.



April 04

금호 Exclusive

<피아니스트 크리스천 블랙쇼 독주회>

2019.4.4. / 금호아트홀



영국을 대표하는 음유시인 피아니스트 크리스천 블랙쇼가 첫 내한 독주회를 연다. 2018/19시즌 영국 위그모어 홀의 상주음악가이자 '직접 노래하지 않고 춤추지 않으나, 음악이 흐르고 춤추게 하는 법을 아는 몇 안 되는 피아니스트'라 칭송 받는 블랙쇼는 처음으로 찾는 한국의 금호아트홀 무대에서 그의 음악성이 밝히 빛날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4번'과 '슈만 환상곡 C장조' 그리고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21번'을 연주할 예정이다.

<제임스 진, 끝없는 여정(The ETERNAL JOURNEY)>

2019.4.4~9.1 / 롯데뮤지엄



세계적인 브랜드 프라다의 아트디렉터 활동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젊은 작가 제임스 진의 세계 최대 규모 전시다. 팝아트의 거장 무라카미 다카시에게 찬사를 받은 제임스 진은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들며 몽환적인 화풍을 보여주는 아티스트다. 이번 전시는 제임스 진의 새로운 신작 포함 길이 10m에 달하는 대형 회화, 조각, 영상, 드로잉 등 총 500여 점이 출품 된다. 동서양의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제임스 진 작품 특유의 환상적인 시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유니버설발레단 <백조의 호수>

2019.4.5~13일 / 유니버설아트센터



클래식 발레의 대명사이자 최고의 발레 입문작인 <백조의 호수>가 화려한 봄날 무대에 오른다. 클래식 발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콤비, 차이콥스키의 아름다운 음악과 마리우스 피티파의 천재적 안무의 만남이 더욱 큰 기대를 모은다.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2019.4.7 / 롯데콘서트홀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와 더불어 스위스를 대표하는 관현악단인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한국에서 내한 연주를 갖는다.



2017년부터 오케스트라의 수장을 맡고 있는 조나단 노트가 지휘봉을 잡고 피아니스트 손염음이 협연자로 나선다.

전시 <영국에서 온 Made In 조선>

~2019.4.7 /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3전시실)



니콜라스 보더라는 영국인이 수년간 수집한 북한 우표, 포장지, 초대장, 선전물, 포스터 등을 포함한 전시다. 2018년 봄 영국의 유일한 일러스트레이션 전문 공공 갤러리인 '하우스 오브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최초로 공개된 뒤, 세계 순회전 첫 번째 나라로 한국이 선정됐다. 전시에 소개된 제품들과 패키지 디자인을 통해 북한의 잘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면모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인형의 집 Part 2>

2019.4.10~28 / LG아트센터

연극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는 입센의 <인형의 집>, 그 15년 뒤 이야기가 펼쳐진다. <인형의 집 Part 2>는 등장인물 간의 다른 입장을 설득력 있게 묘사하며 긴장감 넘치는 대립 현장을 만들어낸다. 특히 서이숙, 우미화, 손중학, 박호산 등 탄탄한 연기력과 스타성을 두루 갖춘 베테랑 배우들이 캐스팅돼 기대를 모은다



클래식 나무! 피아니스트 장 하오천 독주회

2019.4.11 / 금호아트홀



19세의 나이로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의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장 하오천은 가장 각광 받는 협연자로 수많은 오케스트라의 협연무대를 이어가고 있다.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의 데뷔 무대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의 아시아 투어를 진행 중인 장 하오천은 이번 독주회에서 드뷔시, 슈만과 볼레즈 그리고 리스트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시극단 <함익>

2019.4.12~28 / M씨어터

3년 만에 돌아온 서울시극단의 화제작 <함익>은 세익스피어



어의 비극 '햄릿'을 재창작한 작품이다. 햄릿의 섬세한 심리와 내면의 여성성을 중심으로, 재벌 2세이자 대학교수로 완벽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고독한 복수심으로 병들어 있는 여자 햄릿인 함익을 탄생시켰다. 김은성의 섬세한극본과 김광보의 밀도 높은 연출, 전율을 일으키는 배우들의 열연으로 호평을 받았던 <함익>이 관객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다시 무대에 오른다.

<할리우드 온 에어>

2019.4.17 / 롯데콘서트홀

영화 속 클래식으로 채우는 아날로그 감성 가득한 공연이다. 배우의 관점에서 본 영화 속 음악 이야기를 주제로 그윽하고 우아한 음색이 매력적인 배우 김미숙이 진행하고 백윤학 지휘의 코리아콤포케스트라가 풍성한 관현악을 연주해 영화 속 감동을 생생하게 재현한다.



<자화상自畫像 - 나를 보다>

3.1독립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서화미술특별전

~2019.4.21 / 서울서예박물관

3.1독립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조선, 대한제국을 지나 대한민국이 수립되기까지 다양한 인물과 사건들을 글씨와 그림을 통해 돌아본다.



2019 SAC CUBE 연극 <추남, 미녀>

2019.4.24~5.19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추하지만 천재인 남자와 아름답지만 명칭해 보이는 여자의 인생 역정과 로맨스를 작가 특유의 유머와 상상력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어린왕자>, <미녀와 야수>, <더 정글북>,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등 소설을 연극무대로 구현하는 데 탁월한 역량을 지닌 이대웅이 연출한 만큼 믿고 보는 공연이다.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잔잔한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 Memories in 광화문

2019.4.25 / 금호아트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의 지원을 통해 성장한 젊은 거장들이 함께하는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가 광화문 금호아트홀 무대의 마지막 연주를 올린다. 뜨거운 열정으로 실내악 대표 명곡들을 들려주는 것은 물론, 낯선 레퍼토리를 찾아 도전하며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고 있는 이들은 그간 수많은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던 브람스 '피아노 사중주 1번'과 슈만 '피아노 오중주'로 광화문에서의 마지막 기억을 수놓는다.



**리처드 용재 오닐  
국내 데뷔 15주년 기념  
<에네스 콰르텟>**

2019.4.26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세계적 권위의 월간지 <Strings>  
가 드림팀 라인업으로 극찬한 에  
네스 콰르텟이 비올리스트 리처  
드 용재 오닐의 국내 데뷔 15주  
년을 맞아 다시 한 번 내한한다. 에네스 콰르텟은 지구 상



에 존재하는 가장 완벽한 바이올리니스트로 손꼽히는 제  
임스 에네스를 국내에 각인 시켰으며, 리처드 용재 오닐의  
진지한 음악관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에네스 콰르텟이  
오로지 용재 오닐의 국내 솔로 데뷔 15주년을 축하하기 위  
해 가까이 무대에 오를 만큼, 실내악 부심자 리처드 용재  
오닐의 그 어떤 무대보다 빛나는 또 하나의 명연을 기대해  
도 좋다.

**KBS교향악단 제741회 정기연주회**  
2019.4.27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티에서 결성됐으며 다양한 구성으로 정교한 실내악을 연  
주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제임스 에  
네스와 에이미 슈워츠 모레  
티,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  
재 오닐, 첼리스트 에드워드  
애론으로 구성된 현악 4  
중주단의 공연이다. 2010  
년 멤버들이 1년간 레지던  
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시  
애를 책임버 뮤직 소사이어

*May 05*

**금호악기 시리즈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 독주회>**  
2019.5.2 / 금호아트홀 연세



'금호악기은행'으로부터 1774년  
제작의 J.B. 과다니니 투린을 후원  
받아 사용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는 2010 쇼팽 국제 피아  
노 콩쿠르 우승자인 라파우 블레  
하츠와 지속적인 연주 활동에 이  
어 지난 1월, 그와 함께 녹음한 도  
이치 그라모폰 음반을 성공적으  
로 발매했다. 금호아시아문화재  
재단 후원의 악기로 그간 ARD 국  
제 콩쿠르 1위 없는 2위, 헨리크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2위, 몬트리올 국제 음악

콩쿠르 2위 등을 휩쓸며 세계무대에서 저력을 보여준 김  
봄소리의 무대에 귀 기울인다.

**핑크퐁 클래식 나라-뚜뭇미를 찾아라**

2019.5.6 / 롯데콘서트홀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 '아  
기상어(Baby Shark)'로 동요  
최초 미국 빌보드 핫100 차  
트에 진입해 전 세계적 인기  
를 얻고 있는 핑크퐁이 클래  
식 공연으로 탄생한다. 재미  
있고 신나는 클래식을 표방하  
는 이번 공연은 아이들이 흥  
미를 느낄 수 있도록 '아기상  
어', '티라노사우르스' 등 핑크  
퐁의 대표 동요를 오케스트라  
로 선보일 예정이다. 객석에서도 박수 치고 율동하며 다양  
한 형태로 함께 클래식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온 가족을 위  
한 공연이다.



**피아니스트 박종해: <ROUND 3: 세상의 모든 변주>**

2019.5.9 / 금호아트홀 연세  
2019년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 피아니스트 박종해의 시  
리즈 세 번째 무대다. 즉흥연주로도 많은 관심을 모았던



박종해의 음악적 상상력과  
그 확장성을 확인케 될 이번  
연주는 슈베르트로 시작하  
는 고전적 변주부터 브람스  
의 헨델 주제의 변주곡, 베토  
벤의 변주곡을 거쳐 2009  
년 쾨엘리자베스 콩쿠르 작  
곡 부문 한국인 최초 우승자  
전민재의 현대적 변주곡이  
연주된다.

**야스민 바르디몽 컴퍼니 <피노키오>**

2019.5.18~19 / LG아트센터  
1883년 이후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  
명한 동화 중 하나인 <피노  
키오>가 무용극으로 만들  
어졌다. 인간 신체의 한계  
를 넘나드는 독특한 안무와  
사회 현상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현대무  
용 안무가 야스민 바르디몽의 작품이다.



**오르간 시리즈 <티에리 에스카이쉬 오르간 리사이틀>**

2019.5.21 / 롯데콘서트홀



프랑스 음악의 대가이자 파이  
프 오르간부터 피아노에 이르기  
까지 다방면에 재능을 보이는  
오르간 음악계의 르네상스맨,  
티에리 에스카이쉬가 선보이는  
특별한 리사이틀이다. 오르간의  
깊고 풍성한 선율과 울림을 경  
험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질 예  
정이다.

**2019 서울시향 <유카페카 사라스테의 라벨>**

2019.5.23~24 / 롯데콘서트홀



상상 속의 고대 그리스에서 젊  
은 남녀가 상상을 초월하는 모험  
을 펼친다. "그 내음을 나는 소리  
로 생각하고 느낀다"라고 작곡  
가 라벨은 말했다. 1912년 작 발레  
<다프니스와 클로에>에서 청중  
은 찬란한 햇살을 느끼며 새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 호화롭고

환상적이지만 아슬아슬한 춤곡 '라 발스'로 콘서트를 시작  
해 모차르트의 '두 대를 위한 피아노 협주곡'으로 이어진  
다. 자주 연주되지는 않지만 젊은 시절의 모차르트가 자신  
의 장점을 발휘한 작품이다. 핀란드 출신의 명장 유카페카  
사라스테가 이 작품들에서 정교함과 통찰력을 보여줄 것  
이다.

**장-기엔 케라스 & 앙상블 레조난츠**

2019.5.24 / LG아트센터  
바로크부터 현대까지 전  
방위 레퍼토리를 섭렵하  
며 시대를 넘나드는 통찰  
력과 균형 잡힌 연주로 큰  
사랑을 받아 온 첼리스트  
장-기엔 케라스. 그가 독  
일 함부르크의 랜드마크  
로 자리 잡은 엘브 필하모  
니에의 상주단체이자 자  
신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앙상블레조난츠와 함께 처  
음으로 국내 무대에 선다. 바흐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과 교향곡이 더해져 바로크  
에서 고전주의로 이행하는 시기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회원사 소개

<b>회장사</b>	강원랜드	동아출판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재단법인 송강재단	현대백화점
일신방직	경남스틸	동일FnG(주)	서울예술기획	제우인베스트먼트(주)	현대자동차
<b>부회장사</b>	공간그룹	동일방직	서울옥션	제일기획	현대중공업 현대예술관
교보생명보험	광주요	(주)두산	(주)성도GL	조선히otel	현대차 정몽구 재단
(주)노루홀딩스	금융투자협회	두산건설	(주)세원특수금속	종이문화재단	(주)호텔롯데
동성코퍼레이션	금호건설	두산연강재단	세일ENS	지앤이허링코리아	(주)호텔롯데 면세점
벽산엔지니어링	금호고속	두산인프라코어	세화예술문화재단	청림출판	호텔신라
삼성미술관(삼성문화재단)	금호미쓰이화학	두산중공업	소니코리아	컨슈머타임스	홈플러스
삼양홀딩스	금호석유화학	롯데렌터카	(재)송원문화재단	케이옥션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설원량문화재단	금호타이어	롯데문화재단	(주)스파크인터내쇼날	(주)코리아 투모로우	힐라코리아
세아제강	금호폴리켄	롯데백화점	신라교역	코카콜라음료	휴맥스
(주)유니드	금호피앤비화학	르노삼성자동차	신성씨에스	(주)크레디아프로젝트	BMW코리아(주)
종근당	금호홀딩스	(주)마케팅큐레이터그룹	신한금융투자	(주)클라우드나인마케팅	BNK경남은행
코오롱그룹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신한은행	태영건설	BNK부산은행
크라운-해태제과	나라통상(주)	(주)모나미	신한카드	퍼시스	CJ문화재단
파라다이스문화재단	(주)우피플	문화유산국민신탁	아시아나HDT(주)	페르페티 반 멜 아시아퍼시픽	GA KOREA Outlet & Resort
풍산그룹	남이섬교육문화그룹(주)	미디어월	아시아나에어포트(주)	포스코ICT	GS칼텍스 예올마루
한화갤러리아	네이버문화재단	법률사무소 C&B	아시아나항공	필룩스	(주)HK
현대해상화재보험	네이처스훼밀리코리아	베이글카페(주)	(주)아이피케이	(사)한국FPSB	HSD엔진
효성	보령제약(주)	분아이에프(주)	(주)에스원	한국GM	IBK기업은행
<b>이사사</b>	(주)노루오토코팅	불보건설기계코리아	영앤임팩 주식회사	한국경영자총협회	(재)KBS교향악단
가천문화재단	(주)노루페인트	(주)브레드가든	오렌지라이프	한국항공공사	KB국민은행
고려당	녹십자	빌모트 건축사무소 한국지사	오리콤	한국광고주협회	KDB생명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뉴서울 컨트리클럽	삼성SDI	오비맥주 주식회사	한국국제교류재단	KEB하나은행
디자인하우스	뉴스킨 코리아(주)	삼성SDS	오성정보통신	한국남동발전	KT
사라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삼성SDS	올림푸스한국(주)	한국무역협회	KT&G
(주)신세계	디자인하우스	삼성물산	와이에스케이미디어	한국서부발전	LG생활건강
이건홀딩스	사라	삼성생명	우리종합금융	한국수력원자력	LG전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신세계	삼성서울병원	(주)우진	한국암웨이	LG화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건홀딩스	삼성엔지니어링	우진건설(주)	한국전력공사	LH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대신증권	삼성전자	원마운트	한맥도시개발	OCI
한성자동차	대우건설	삼성중공업	월드리즈개발주식회사	한미약품	POSCO
LG연암문화재단	(주)대창스틸	삼성증권	원포시스(주)	한미회계법인	SK건설
SK SUPEX추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삼성카드	유안타증권	한빛문화재단	SK네트웍스
사회공헌위원회	대한제분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유중아트센터	한세실업	SK에너지
<b>회원사</b>	(주)대한항공	(주)삼양인터내셔널	이건산업	(주)한진	SK증권
가나아트갤러리	더페이스샵코리아	삼익문화재단	이상일문화재단	(주)한화	SK텔레콤
	도서출판 '삶과 꿈'	삼일회계법인	인산죽염 주식회사	한화생명	SK해운
	동서식품	(주)삼화에프앤에프	인터파크 큐브릿지	한화손해보험	SM삼한기업
	동아쏘시오홀딩스	상암커뮤니케이션즈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한화케미칼	TCC동양

NEW MEMBERS

남이섬교육문화그룹(주)

남이섬과 남이섬의 문화적 토양을 기반으로 공연, 전시, 축제, 공모전 등 다양한 문화사업과 교육 프로그램, 국제교류를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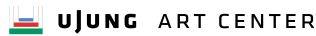
(주)대창스틸

포스코의 철강제품 지정판매점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 주요 자동차 부품사 및 가전업체 등에 철강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국내 유수의 건설기업을 파트너사로 확보하고 있다.

(주)마케팅큐레이터그룹

제조/유통/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전문가들이 클라이언트의 비즈니스 문제를 시장과 소비자 관점에서 재정의하고 해석해 토털 마케팅 솔루션을 선별, 실행하고 있다.

함께하는 메세나  
회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2018.12 ~ 2019.01)



회원사에서 주시는 회비는 우리나라가 문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투자비로 쓰이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주)세원특수금융**

고기능성 특수동합금을 개발·생산하는 전문기업이다. 원자재 입고에서 주조, 열처리, 압연 및 인발, 완제품 포장까지 원 스톱으로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갖추고 있다.

**오성정보통신**

IP영상시스템, IP방송솔루션, 스마트안내판(Smart Signature), IT 솔루션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제품 연구와 품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월드리츠개발 주식회사**

소규모 부동산의 개발 및 시행을 진행하며 특히 도심지 낙후 건물의 리모델링 및 재개발에 대해 소수의 자산가로부터 투자를 받아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필룩스**

2010년 중소기업문화경영대상을 수상하는 등 문화경영을 실천하는 조명기업이다. 조명박물관을 개관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활동과 전시를 개최할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 및 메세나 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 이 꽃병에선 모든 꽃말이 '안심'

혹시, 소화기 어딘는지 기억나세요?

언제나 당신 가까이 둘 수 있는  
꽃병소화기 Firevase를 소개합니다

평소에는 꽃병이자  
화재 시 던져서 불을 끄는  
꽃병소화기 Firevase

늘 곁에 있는 보험처럼  
늘 옆에서 당신을 지킬 거예요

